

한교연, 동성애 차별금지법 등 강력저지 결의

한국교회연합 제4-4차 임원회가 지난 10월 1일 오전 11시 한교연 회의실에서 열려 동성애 차별금지법 저지와 이슬람 확산, 종교인 과제 대책에 대한 보고를 받고 회원교단들과 함께 강력히 대응해 나가기로 결의했다.

81명(출석 27명 위임 54명)의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임원회는 TF특별위원회(위원장 고시영 목사) 보고를 받고 동성애 및 차별금지법 저지, 이슬람 확산 저지, 종교인 과제에 대한 회원교단 및 한국교회 전체의 공조가 시급하다는 인식을 같이하고 회원교단에 공문을 보내 목회서신 등의 방법으로 한국교회가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결의했다.

이어 역사교과서 문제를 보고한 박명수 교수(기독교역사정립위원장)는 현재 역사교과서에 기독교에 대한 서술이 타종교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고 보고하고 우리 자녀들이 한국 근세사에서 기독교가 아무런 한 일이 없다는 잘못된 역사를 배우지 않도록 한국교회가 보다 관심을 갖고 대책을 세워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임원회는 제5회기 대표회장을 선출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선정했다. 선거관리위원장은 정관에 따라 직전 대표회장인 한

한교연 제4-4차 임원회, 제5회 총회는 12월 11일 백주년에서



영훈 목사가 맡게 되며, 위원들은 후보가 나올 나군을 제외한 가, 다 군에서 공동회장 6명을 양병희 대표회장이 당선에서 위촉해 발표했다.

■ 제5회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 한영훈 목사(직전 대표회장) ▲위원 : 정영택 목사(통합) 장종현 목사(대신) 정서영 목사(합동개혁) 우종휴 목사(합신) 김효중 목사(장신) 정세량 장

로(한지선) 임원회는 제5회 총회 소집과 관련, 일정과 장소를 대표회장에 위임했으며, 양병희 대표회장은 12월 11일(금) 오후 2시 한국교회백주년기념과 대강당에서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임원회는 대표회장의 회비를 현실화하고 특별위원회 정수를 줄이는 등의 운영세제 개정안을 놓고 장시간 논의한 끝에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일부 임원들

의 의견을 받아들여 다음 회기 중에 다시 다루기로 했다. 다만 공동회장은 9월 장로교 총회에서 선출된 신임 총회장들로 공동회장을 교체하기로 하고 회원교단들에 협조공문을 보내기로 했다. 또한 이사회는 1년 1백만원으로 정하기로 했으며, 소천으로 공석이 된 법인감사에 김춘식 장로(기성 중경부총회장)를 보설했다.

한기총 여성위원회, 추석 맞아 여명학교 방문해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여성위원회(위원장 고영자 권사)는 9월 25일(금) 추석을 맞아 여명학교(서울시 중구 소재)를 방문해 학생들과 함께 식사하며 격려했다. 여명학교는 북한이탈청소년들과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들을 교육하는 학교로 현재 110여 명의 학생들이 교육을 받고 있으며, 북한을 사랑하며 지원하던 교회와 개인들의 후원으로 세워진 학교이다.

위원장 고영자 권사는 “밝고 희망으로 가득차야 할 학생들에게 남북분단이라는 현실의 무거운 짐을 지운 것 같아 미안하고 안타깝다. 하지만 이곳 여명학교에서 과

거의 아픈 기억을 잊어버리고 아름다운 미래를 소망하며 공부하기를 바란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통일을 허락하실 것을 굳게 믿고, 북한을 회복시켜 나갈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기도한다.”고 말했다.

고영자 위원장을 비롯한 20여 명의 여성위원들은 준비해 간 도시락으로 함께 식사하며 학생들을 위로하고 격려했다. 이후 여성위원회는 이흥훈 교장선생님께 금일 봉을 전달하였으며,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스마트폰 QR코드로
지저스타임즈를
볼 수 있습니다.



21세기를 책임질 미래의 지도자를 위한 포럼 열린다

오는 10월 9일(금) AW컨벤션센터에서 400여명 청년대학생 포럼 참석 예정
장상 박사, 정일웅 박사, 박성민 박사 '우리는 제자입니다' 주제로 특강 맡아

기독교가 최고의 부흥기를 거쳐 쇠퇴하면서 대두된 것 중 하나가 바로 '영적 지도자 부재'이다. 최근 들어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들을 보면 공통점은 바로 '영적 지도자 부재'이다.

이에 한국기독교교포츠총연합회, 한국범죄예방국민운동본부가 공동주최하고 대한민국국민연합, 국가미래경영포럼이 공동주관으로 21세기를 책임질 미래의 지도자를 위한 포럼을 대한민국 최초로 AW컨벤션센터에서 10월 9일 오후 7시 기독교지도자 및 청년대학생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다.

이날 특강으로는 장상 박사(전 국무총리 서리), 정일웅 박사(전 총신대학교 총장), 박성민 박사(CCC대표)가 나서며 1부예배 사회는 송용필 목사(한국기독교교포츠총연합회 대표회장), 2부포럼 사회는 이상형 사관(한국기독교교포츠총연합회 실무회장)이 맡았으며 이영준 박사(햇빛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총장), 주대준 박사(선린대학교 총장), 엄바울 목사(한기총 공동회장), 유영대 기자(국민일보 종교부 기자)가 패널로 참석하고 한은수 감독(한국기독교원로목회자후원회 총재) 주제발표, 정규재 목사(국가미래경영포럼 상임회장)가 소감발표를 맡았다.

이날 특강 첫 번째 멘토 장상 박사는 '교육적 측면'을 주제로 특강을 하고 두 번째 멘토 정일웅 박사는 '신학적 측면', 마지막 멘토로 나서는 박성민 목사(CCC대표)는 '대학생 측면'을 주제로 특강을 마무리한다.

특강에 앞서 객석회 목사(소망교회 원로목사)의 설교, 김강환 목사(국동방송 이사장)의 축하영상 메시지, 황우여 장관(교육부)의 영상 메시지와 임원순 목사(한국기독교교포츠총연합회 이사장)의 인사말, 강영선 목사(한국기독교교포츠총연합회 총재)의 환영사 등의 순서가 펼쳐진다.

한국기독교교포츠총연합회 이사

장 임원순 목사는 "미래의 지도자는 운유하며 인내심이 강해야하고 포용력이 있어야하며, 미래를 바라보는 해안과 영안이 열려 있어야 한다. 이번 포럼을 통해 지도자로서의 능력이나 지도력, 통솔력, 자질 등을 겸비한 미래의 리더로서 철저하게 준비하는 지도자들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기독교교포츠총연합회 총재 강영선 목사는 "지도자의 힘의 원천은 기도이다. 그러기에 기도의 용사가 되어 영력을 육성해야 한다. 탐욕을 버리고 마음을 성결케 하며, 의를 사모하는 심령이 되어야 한다. 마음과 영을 성결케 하고 어둠을 밝히는 햇빛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하며 이어 "포럼에 참석한 모든 기독교지도자들과 청년대학생들이 기도의 군사가 되어 마르지 않는 지도자의 힘의 원천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기독교교포츠총연합회 상임회장 김진욱 목사는 "나라가 망하려면 지도자 한두 명이면 충분하다고 했다. 국가를 발전시키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망하는 것은 한 순간이라는 말과도 같다. 위대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지도자를 찾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말이겠다. '나를 따르라'는 중앙 집권적 리더십보다는 21세기 글로벌 시대에 걸맞는 '함께 감시다'를 앞세우는 영적지도자가 하나님의 은혜가운데 포럼을 통해서 보여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준비위원장 이주대 장로(대한민국국민연합 대표회장)는 "영적지도자는 지성과 감성, 영성이 탁월해야 한다. 이기적이고 위선적이며 나태하고 교만해서는 안된다. 순종의 태도로 겸손하며 성실하고 원



수의 생명까지도 존귀히 여기며, 원수에게 축복을 해 줄 수 있는 넓은 아량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며 "이번 포럼을 통하여 대한민국을 변화시키는 탁월한 지도자가 결신하고 소망한다."고 강조했다.

국가미래경영포럼 신연옥 사무총장은 "미래의 지도자를 위한 포럼은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통해 본받을 것을 본을 삼고 미래를 예비하기 위해 현재에 충실히 살아가며 모범을 보일 수 있는 탁월한 지도자에게 나침반의 역할을 할 것이다." 이어 "국가미래경영포럼은 앞으로 정기적으로 꾸준한 포럼을 통해 세계를 움직이는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이 이 포럼을 통해 헌신하고 사명감을 가질수 있도록 할 것이다. 미래의 행정대통령, 미래의 경제대통령, 미래의 통일대통령, 미래의 문화대통령을 배출하는 포럼이 되도록 훌륭한 멘토를 초대해 특강을 준비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미래의 지도자를 위한 포럼'을 통해 전 국민이 신뢰하고 각 가정과 교회, 직장 사회전반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드는 초석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문의전화 02-2213-4258
E-mail : mission987@naver.com

구원을 향해 달려가는 신앙인들의 필독서

Tabernacle
Spirituality

성막영성

막다른 길에 다가선 절박함과 구원의 서정을 향해 가는 신앙인의 돌파구이자 전환점인 성막 영성을 말하다!
구원 서정의 5단계 : 송택규 저

모래바람이 세차게 불고 물 하나 없는 거친 황량한 광야에 외롭게 우뚝 솟은 성막 그러나 그곳에 평안이 있고 십자가의 사랑이 있었다. 또한 화계와 울사가 있었고 옛 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거듭나는 구원이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 그곳은 최초로 하나님께서 인간들과 함께 하기 위하여 내려오신 곳이다.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다섯 가지 영적 비밀들을 알려 주시고 친히 오신 것이다. 하나님은 이 비밀들 속에 그분의 성품이 담긴 영성으로 들어가는 통로들을 만들어 놓으셨다. 공물과 사물이 많은 자녀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까지도 예비해 두신 것이다. 첫 번째 성막의 비밀은 하늘에 있는 에베살렘의 모형이라는 사실이다. 앞으로 구원받을 백성들이 천국에서 맞이하게 될 천국 궁전의 모형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함이었다. 두 번째 성막의 비밀은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부터 부활 승천까지의 전 생애를 예표하고 있다. 세 번째 성막의 비밀은 타락한 죄인들이 죄 사함을 받아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구원의 순서 구원의 안내도(Direction)라는 것이다. 구원은 믿음으로 감응이 일어나지(지나) 순서가 있고 단계가 있어 그 과정을 통과해야만 갈 수 있음을 친절하게 알려 주셨다. 네 번째 성막의 비밀은 구원으로 가는 성도들의 믿음을 점검하신다는 사실이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이므로 아무리 작은 죄악이라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신다. 성도들의 믿음을 그때그때마다 점검하고 저울에 달아보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에 미달하면 탈락시키고 재시도를 보게 하신다. 그러나 그 분량에 도달한 성도는 한 계단, 한 계단 통과시키고 다시 합당한 은혜를 주시며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다섯 번째 성막의 비밀은 그 안에 예배의 순서와 의미가 담겨 있다는 사실이다. 덮어놓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듣고, 헌금한다고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순서와 의미를 바로 알고 드러나 하나님께 받으신다. 예배는 형식적인 종교행위가 아니라 실존의 하나님 앞에서 나를 드리는 실제적이고 엄숙한 희생제이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영의 부모이다. 그 부모의 사랑과 뜻이 성막 안에 담겨 있다. 그러므로 성막의 영성을 모르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승화된 것이다. 이러한 비밀들은 하나님께서 계획할 때까지 숨겨 두셨던 것들이다(히 1:1). 끝으로 한 마디 더 하고자 한다. 이 글은 본인이 연구하거나 본인의 힘으로 쓴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성령님의 작품이다. 이 성막의 비밀, 곧 성막 영성 구원 서정의 5단계를 통해서 교회들이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 영성론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역사가 이 땅에서 속히 실현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발췌문에서 송택규

저자 송택규 이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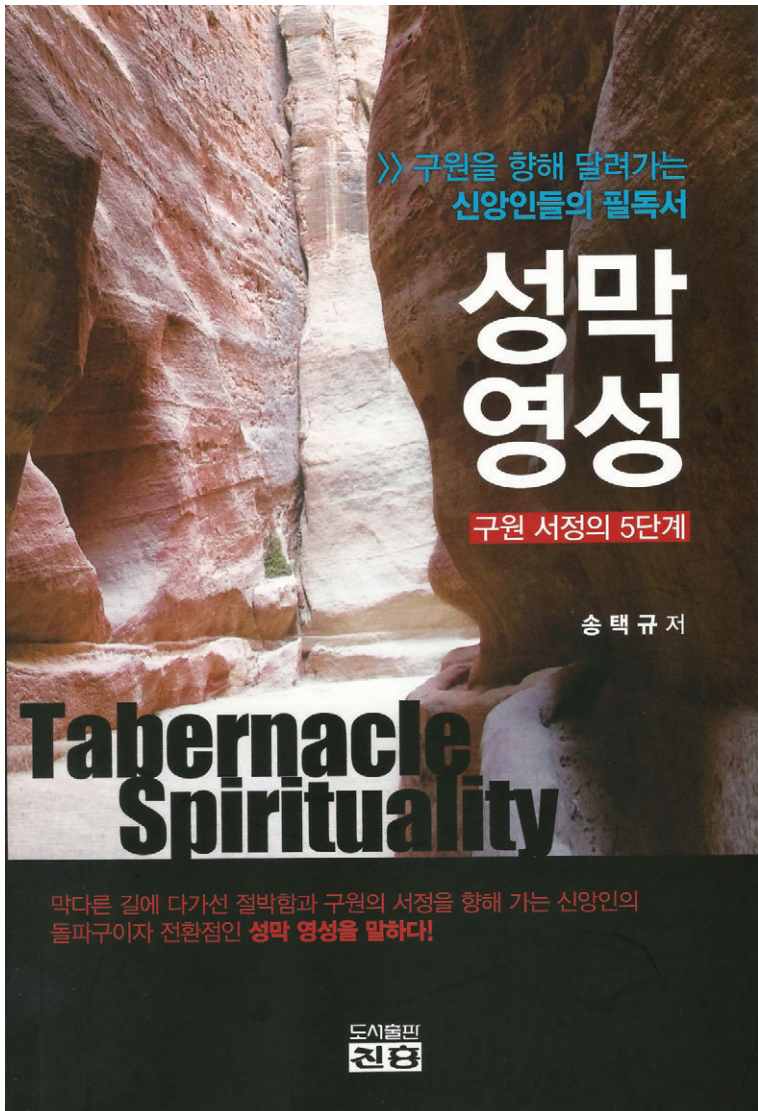
평양신학교, 백석대학 대학원 졸업
트리니티대 목회학박사
유인대 철학박사 및 신학대학장, 부총장
로드랜드대 교육학 박사 및 신학대학장
샌퍼난도밸리 한인회 이사장
남가주목사회 부회장

현재 세계 크리스찬 영성원 대표
미주타임즈(Mjtimes)
지저스타임즈(www.jtntv.kr) 주필

저자연락처 : tel(213)-663-8640 / (213)983-9136
E-Mail:tdhope12@gmail.com / www.mjtimes.com

책 구입 : 우체국 104794-02-320-848
예금주 : 송진숙

문의전화
H.P 010-2009-5973



축 제100회기 각 교단 신임총회장 당선인 하

총회장 박무용 목사(합동)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는 2015년 9월 14일~18일까지 “공교회성 강화와 한국교회 미래선교 100년을 준비하는 총회”라는 주제로 대구 반야월교회에서 열려 총회장 박무용 목사(대구수성노회/ 황금교회), 목사부총회장 김진규 목사(평양제일노회/ 성현교회), 장로부총회장 신신우 장로(전남노회/ 광주동명교회),



총회장 채영남 목사(통합)

채영남 총회장은 100년의 은혜에 감사하며, 100년의 대계를 풀어야 할 영광스러운 책임을 맡게 되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새 시대 100년의 행복한 총회를 위해 몸과 마음을 바쳐 섬길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총회장 채영남 목사(광주동노회/분향교회), 부총회장 이성희 목사(서울노회/ 연동교회)



총회장 최부옥 목사(한국기독교장로회)

한국기독교장로회 제100회 총회가 14~17일 원주영강교회에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성찬의 깊은 뜻, 세상 안에서’를 주제로 개최된 가운데 최부옥 목사(서울동노회 양무리교회)가 신임 총회장에 선출됐다. 총회장: 최부옥 목사(서울동노회·양무리교회) 부총회장: 권오륜 목사(서울남노회·발음교회), 고은영 장로(군산노회·세광교회)



총회장 신상현 목사(고신, 고려 신임 통합총회장)

총 회 장: 신상현 목사(울산노회 미포교회) 목사부총회장: 배광호 목사(동부산노회 남천교회) 장로부총회장: 김진욱 장로(서부산노회 모라중앙교회)



통합총회장 장종현 목사(예장대신/백석)

경기도 화성시 라비폴리조트에서 14일 열린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대신·백석 통합총회’에서 통합총회장에 추대된 장종현 목사는 “부족한 중에 통합총회장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맡겨주시고 통합총회를 이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며 취임 소감을 밝혔다.



총회장 박종근 목사(예장대신총회)

총회장:박종근 목사(안산노회, 모자이크교회)△부총회장:양치호 목사(경인노회, 성광교회)

결국 분열은 피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를 ‘전화위부’ 삼아 54년 자생교단의 역사를 개혁하는 혁신적인 계기로 삼을 것을 천명했다. 총회 파행의 단초가 됐던 총회회관은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고신 끝에, 매각을 결의했으며 총회 조직개편 및 노회조정, 헌의청안 등은 오는 10월 19일~21일 속회를 열어 처리하기로 했다.



총회장 김운복 목사(예장개혁)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개혁) 100회 총회를 21일 오후 2시 인천 청라 사랑의교회(시무 박용배 목사)에서 개최되어 신임총회장 김운복 목사(서해제일교회), 부총회장 최정웅 목사(참사람교회), 서기 김대은 목사(경인임마누엘)가 선출됐다



총회장 박종선 목사(합동진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총회가 되겠다 다짐!

총회장 박종선 목사, 부총회장 강순복, 박수안, 박대순, 유군호, 한정숙, 최경환, 나병하, 박영덕 목사를 선출했다.



정통총회 총회장 양정섭 목사(연임)

예장정통총회 제51차 정기총회에서 현 총회장 양정섭 목사가 유임되고, 부총회장 김흥룡 목사, 이영춘 목사, 김인호 목사, 양성은 목사를 유임, 신임 부총회장 한세전 목사를 선출했다.



예장총회 총회장 홍재철 목사(연임)

홍재철 총회장은 총회에서 교단 설립자 박윤식 목사를 명예초대총회장으로 추서하고 모든 회원들의 정성을 모아 추서패를 전달했다. 또한 WCC반대대책위원회, 신양적제일치만대대책위원회, 동성애반대대책위원회, 남북통일미래세대 교류위원회 등 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의했다. 이날 신임 총회장 홍재철 목사, 부총회장 양인천 목사, 페리 탄디오노를 선출했다.



예장웨신 제100회 총회, 신임총회장 정일량 목사 당선

부총회장 (남) 전복수 목사, 신동근 목사, (여)양덕심 목사 선출

대한예수교장로회(웨신)총회는 지난 9일(화) 오전 9시 용인 한화호텔&리조트에서 제100회 정기총회를 열고 정일량 목사(향기로운교회)는 총대들의 만장일치 지지를 받고 웨신총회 제15대 총회장에 당선됐다.

예장웨신총회는 9월 7일(월)~9일(수)오전까지 교단 수련회를 개최하고 웨스트민스터 정인창 총장을 감사로 초청 세미나를 갖는 가운데 화요일 오전 9시 성총회를 가졌다.

부총회장 정일량 목사의 인도로

개회예배가 시작되어 총회서기 전복수가 기도를, 회의록서기 신동근 목사의 성경(수4:19~24절)봉독과 연합노회 1+1의 특별찬양이 있은 후 총회장 이영종 목사는 “우리가 세울 기념비”란 주제로 설교했다.

제100회기 성총회 15대 신임총회장

장과 신임원은 아래와 같다.

총회장 정일량 목사(중앙노회/향기로운교회), 부총회장(男) 전복수 목사(서부노회/주안교회), 신동근 목사(서울노회/햇빛교회), 부총회장(女)양덕심 목사(경성노회/새생명교회), 서기 하중우 목사(한서

노회/바울선교교회), 부서기 이용규 목사(중부노회/예사광교회), 회의록서기 박우재 목사(대학노회/웨신대), 부회의록서기 박노경 목사(수도노회/주은교회), 회계 김정욱 목사(서울노회/충일교회), 부회계 최선녀 목사(경향노회/소망교회), 감사 김준택 목사, 허성인 목사, 이재갑 목사, 등이며, 총무 신연창 목사(연합노회/성암교회)는 유임됐다.

한편 신임총회장 정일량 목사는 JTNTV 본지와와의 인터뷰에서 “미력하나마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에



조금도 부끄럼이 없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것을 믿고, 특별히 웨신대와 그동안의 성원했던 일들이 잘 정리가 되었다고 믿고, 정인창 총장이 약속하신 것처럼 독수리의 양 날개가 되어 웨신대와 총회가 같이 갔으면 한다. 작은 힘이나마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잘 붙

들어 주실 것을 믿으면서 학교와 총회가 서로협력하고 잘 도울 수 있는 자그마한 조직이면 한다. 총회와 학교가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 되는 것이라며 총회장으로서의 소감을 피력했다. (자세한 것은 www.jntv.kr 에서 볼 수 있음)

지저스타임즈 www.JTNTV.kr 기독교인터넷방송

정기행동 등록번호 : 서울다-07837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대표고문: 피종진 목사 이사장: 조강수 목사 사장: 소진우 목사 발행인: 장기남 목사

전국 24개 지사 / 해외 27개국 지사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지양로 176번길 32호 대운빌라 2층 202호 (고강동5 574-10, 대운빌라 2층 202호)
▶E-mail : jtpress@hanmail.net / jntvcpj@naver.com
▶전화 : 032) 672-3031(팩스겸용) ▶직통 : 070) 8230-0034
▶H.P : 010) 5468-6574
▶정성을 다한 후원금은 도지 농어촌 미자립교회와 해외지사에 신문을 보내는 선교사가 됩니다. 문서선교에 후원이사가 되어 주십시오.
▶1구좌 후원금 10,000원부터~
▶1년 구독료 : 48,000원
▶후원계좌(예금주 : 정기남)
하나은행 758-910292-36807 / 농협 455030-56-005509

대한예수교장로회 삼성중앙교회

표어 :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음이라

2015 표어

- 선교하는 교회
- 사랑하는 교회
- 부흥하는 교회



당회장 정 대 성 목사

예/배/시/간/안/내

새벽 예배 : 새벽 6:00
주일낮예배 : 오전 11:00
주일오후예배 : 오후 2:00
수요밤예배 : 오후 7:30
금요기도회 : 오후 7:30

경기도 김포시 운곡로9번길 15, (장기동 131)
☎ 010-6418-3468

대한예수교장로회 목포주안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당임목사 모 상 련

●예배시간안내
주일낮 예배 : 1회 오전 8:00 34층 대예배실
2회 오전 10:00 1층 대예배실
3회 오전 11:30 34층 대예배실
주일 오후예배 : 오후 2:30 1층 대예배실
저녁예배 : 오후 7:00 34층 대예배실
수요일예배 : 오후 7:30 1층 대예배실
금요일기도회 : 오후 8:00 1층 대예배실
매일신앙예배 : 오전 8:00 1층 대예배실

대한예수교장로회 목포주안교회
530-814 전남 목포시 북항동 1671-15(북항주택단지)
전화:(061)272-4908, 278-0692 팩스:(061)-278-0693
홈페이지 http://www.mokpojoan.com

http://www.dtu.ac.kr

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

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 신·편입생 모집안내

본교는 말씀과 삶을 통합하는 시대의 사명을 감당할 주역들을 모집합니다.



홍정 황원찬 박사

목회학석사(M.Div.)		필요특성	필요학점 수합	전	00명
석사과정	신학(신학석사)	주안, 화수목, 안간, 월목목	3년	00명	
	사회복지학(사회)	사회복지전문, 복지상담전문	3년	00명	
	상담심리학(심)	상담심리전문	3년	00명	
신학석사(M.A.)	신학	구약학, 신약학, 조형신학, 역사신학, 기독교교육학, 선교학, 실천신학, 상담, 예배, 목회학	3년	00명	
	신학	구약학, 신약학, 조형신학, 역사신학, 기독교교육학, 선교학, 실천신학, 상담, 예배, 목회학	3년	00명	
	사회복지학(사회)	사회복지학 전문	3년	00명	
전문과정	신학	상담심리전문	3년	00명	
	신학	목회학, 신학	2,3년	00명	
연구과정		목회학석사(M.Div.) 및 신학석사(M.A.)	3년	00명	

*목회학 석사 전문 3년 수합



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
DAE HAN THEOLOGICAL UNIVERSITY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406번길 30
TEL 031-470-3333 FAX 031)473-5947
입시본부 031) 470-3327(010-2419-1407)
http://www.dtu.ac.kr



주님과 함께하는 가정예배

소진우 목사(예복 교회 담임 / 본지 사장)



소진우 목사

- 예복교회 담임
- 지저스타임즈 · JTNTV 방송 사장
- 라이프월드미션 총재
- 극동방송 칼럼리스트
- 백성TV 칼럼리스트
- CTS 칼럼리스트

제목: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성경: 시편 7편 8절 찬양: 찬송가 570장

다윗은 모든 백성을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와 성실함을 따라 판단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의란 자신이 악인들 보다 절대적으로 의롭다는 의미보다 상대적 으로 의롭다는 의미에서의 의라고 볼 수 있습니 다. 내 자신을 돌아보면 한 없이 초라해 보이고 약해보이는 것이 우리 사람입니다. 육안으로 보 면 0점짜리 인 내 인생을 예수님짜리로 만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 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목: 악인의 악을 미워하고
성경: 시편 7편 9절 찬양: 찬송가 348장

본절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응 답하실 줄 믿고 구체적인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다윗은 이 기도에서 악인의 재 거를 간구하지 않고 다만 악인의 악이 제거되 기를 간구하였습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 워하지 말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역 사하는 악한 세력들을 향하여 오늘도 내게 주 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제목: 거룩한 분노를 품고
성경: 시편 7편 10-11절 찬양: 찬송가 302장

역시 9절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분노는 당연히 악인에 대한 분노입니다. 하나님은 본질상 의로우신 분이시 므로 악인에 대해서는 항상 반대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우리 안에 복음에 대하여 빛나간 진리에 의한 분노는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악을 미워 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낼 수 있는 거룩한 분노입니다.

제목: 회개할 기회가 주어진다
성경: 시편 7편 12-13절 찬양: 찬송가 265장

악을 행하는 모든 악인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악인을 심판하기 위해 준비하시는 하 나님의 행위를 묘사하는데 마치 활을 당기어 과녁을 향하여 쏘듯이 하나님의 심판은 조금도 어긋남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지으 신 사람들을 향하여 회개 할 기회를 주시는 것 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에 따른 대가는 인간이 회개하지 않은 선택 의 결과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제목: 무엇을 날을 것인가?
성경: 시편 7편 14절 찬양: 찬송가 289장

본 구절은 악인이 고통을 당하는 첫째 원인 은 하나님이 아니라 죄악을 즐긴 악인 그 자신 에게 있음을 강력히 시사해 주는 것입니다. 성 경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공존합니 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의 뜻 에 벗어나 사는 사람들은 헛된 일을 사랑한 결 과로 빚어진 것이 분명합니다.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할 것인지 아니면 악과 재 앙을 낳는 삶을 살 것인지 내 자신을 돌아봅시 다.

제목: 감찰하시는 하나님
성경: 시편 7편 15절 찬양: 찬송가 499장

악인이 결국에 달랠갈 파국의 과정을 묘사하 고 있습니다. 여기서 함정은 다른 사람을 빠뜨 리기 위해 파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악 인 자신이 빠지게 될 것인데 왜냐하면 하나님 은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 다. 오늘 나의 삶 속에서 속속들이 감찰하고 계 시고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이되기 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시 며 주관자 되어 주실 때 역사는 오늘 나로부터 시작되게 될 것이며 나는 그날에 하나님이 하 는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제목: 주님 앞에 나아가
성경: 시편 7편 16-17절 찬양: 찬송가 369장

절박함으로 시편 7편을 시작한 다윗은 이제 찬양으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확인할 수 있 었기 때문입니다. 그 누가 하나님의 지혜를 깨 달을 수 있으며 하나님의 위엄 앞에 도전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봅시다. 오늘도 찬양받기 합 당하신 그 이름 그 거룩한 이름 앞에 나의 모든 아픔, 고난, 상황을 고하며 말합시다. 내 모 든집 대신 지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목: 창조의 하나님
성경: 시편 8편 1절 찬양: 찬송가 550장

본서는 찬양의 시이며 특히 하나님의 창조를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본서의 내용은 창세기 1 장의 기사와 일치하고 있습니다. 즉, 창세기 1 장에 하나님의 전체적인 창조와 함께 인간의 탁월한 위치가 기록된 것과 같이 본시에서도 같은 내용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선 천 지를 지으시고 지으시는 것들마다 오늘을 사는 나의 모습을 그리면서 창조를 하시고 지금도 창조 중이신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되십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의 기쁨이요 행복이 되는 하 루를 살아가길 바랍니다.

제목: 대적인가 어린아이인가
성경: 시편 8편 2절 찬양: 찬송가 392장

본문의 대적은 인간의 힘을 자랑하며 교만하 게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악인들을 상징한 다. 반면에 어린아이나 젖먹이는 연약하지만 하 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겸손한 자를 상징합니다. 세상에서 갖는 힘, 명예, 소유로는 누린 듯하나 만족하지 못하고 그 결국은 사망으로 이끌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에 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지시고 상주시는 보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목: 주의 손가락으로
성경: 시편 8편 3절 찬양: 찬송가 580장

다윗은 주의 손가락으로 천지를 만드셨다는 표현으로써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연연중에 나 타내고 있습니다. 광활한 우주를 하나님께서 간 단하게 창조하실 수 있었다는 사실을 다윗은 손가락으로 지으셨다는 표현을 통해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무에서 유가 창조되고 때론 유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통해 다시금 깨닫 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눈과 손이 나를 향 하여 도움과 바라보게 하는 삶이되길 축복합니 다.

제목: 내가 무엇이었기에
성경: 시편 8편 4절 찬양: 찬송가 419장

광활한 우주에 비해 인간은 참으로 보잘것없 은 존재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인간이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 된다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높이 찬양하 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 세계를 보며 때론 우린 하나님의 위대하고 그분을 느 끼곤 합니다. 그분은 내가 먼저 찾지 전에 나에 게 다가가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주의 길게 보고 계시며 나를 향해 놀라운 계획도 가지고 계십니다.

제목: 하나님 지으신 인간은
성경: 시편 8편 5절 찬양: 찬송가 557장

인간이 하나님과 비교될 수 있는 존재가 아 납니다. 만물에 대한 인간의 위치와 임무를 규 정하는 구절이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

님께서 인간에게 관을 씌우셨다는 말은 인간을 만물을 다스릴 지배자로 세우셨음을 나타합니 다. 만물의 영장이라 불리는 인간에게 주어진 창세기 1장에 주어진 명령은 창조되어진 세계 에 대한 명령을 다시금 떠오릅니다. 오늘 주 어진 자연을 보존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 운데 펼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제목: 내게 주어진
성경: 시편 8편 6절 찬양: 찬송가 179장

본절은 창세기 1장 28절의 땅을 정복하라는 말씀과 유사한 표현입니다. 왕에게는 백성이 종 속되어 있듯이 하나님은 인간의 통치권 하에 만물을 종속시키신 것입니다. 타락으로 인한 통 치권 상실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이와 같 은 지배권은 회복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사는 우리는 이 만물을 잘 다스리고 대리자의 임무를 수행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존재를 다시금 생각 해 볼 때 하나님 앞에 대단하고 존귀한 자로써 많은 사명, 주어진 소명을 잘 감 당하며 살길 소망합니다.

제목: 모든 생물을
성경: 시편 8편 7-8절 찬양: 찬송가 467장

모든 짐승들(7절) 뿐만 아닌 모든 생물이(8 절) 포함됩니다. 이처럼 땅과 바다와 공중에 있 는 모든 생물이 인간들의 지배하에 있게 된 만 큼 인간의 영광은 왕적인 영광입니다. 예수 그 리스도께서 통치하고 계신 이 모든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함께 누 리며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것은 크나 큰 영광입 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로써, 그분의 형상 으로 창조된 우리에게 다시금 창조를 보며 나를 위해 이 모든 것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목: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성경: 시편 8편 9절 찬양: 찬송가 351장

다윗은 처음에 시작했던(1절) 말로써 본시를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 한군데에서 찾을 수 있گی 보단 우리 생활 속에 서 그분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분의 영 광을 보며 내 삶을 둘러싸고 있는 그분의 영광 을 보며 우리의 눈이 주의 영광을 바라 볼 때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찬양 받 기 합당하신 그 거룩하고 높으신 이름 앞에 오 늘도 앞으로도 그분만 보고 당당하게 사는 여 러분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연식 건강교실(1)

1. 유연식 체조이론과 실제

》체조의 필요성

체조는 연령이나 유연성 수준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배울 수 있다. 방법이 용이하고 완만 하여 근육의 긴장도와 유연성의 차이에 관계 없이 순조롭게 적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레 서 누구나 할 수 있으며 꾸준히 하면 많은 효 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자기 자신이 원한다 면 언제 어느 곳에서든 이 체조는 가능하다.

시간에도 자유를 받지 않는 것이 장점이며 그래서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이나 일하던 중 신경의 긴장을 풀려고 할 때 또 오랜 시간 동 안 서 있거나 앉아 있고 난후와 몸이 빠근함 을 느낄 때와 텔레비전 시청할 때 음악 감상 이나 독서등 가능한 여가 시간에 조금만 투자 하면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왜 체조를 해야 하는가? 그것은 체조는 마 음을 편하게 하고 몸에 활력을 불어 넣어 주 기 때문에 일상생활중의 한 부분으로 자리매 김해 두는 것이 좋다. 규칙적으로 체조를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다. 근육의 긴장을 완화시키며 동작이 쉽고 자유로워져 신체의 협응력이 좋아지며 근육의 염좌 같은 상해를 방지한다.

또 이 체조는 근육에 곧 활동할 것이라는 신호를 주게 됨으로써 사전 준비를 시키고 각

종 스포츠의 강력한 동작 수행을 가능케 하며 몸과 마음의 교신이 가능해짐으로써 신체의 각성 수준을 높여주고 신체를 지배하는 마음 의 통제를 풀어주기 때문에 신체는 경계 혹은 자이를 위해서라기보다는 그 스스로를 위해 움직일 수 있게 되며 혈액순환을 돕고 몸을 편안하게 해준다. 이 체조를 할 때는 편안한 동작부터 발전된 동작 순으로 하면서 여러번 반복하게 하기에 무리 하지 않는 것이 좋다.

편안하고 쉬운 자세로부터 단단하게 뭉쳐 있는 근육을 풀어 나가는 것이기에 인체 조직 으로 하여금 진전된 체조에 적응할 수 있게 하는 준비이다. 이 체조로 근육을 쾌적하게 하 고 활력을 불어 넣어 줌으로써 유연성을 증가 시킨다. 이 체조의 특징을 또한 호흡법과 구령 법등을 통하여 부자연스러운 동작이나 어색한 동작 등을 부드럽게 해 준다. 이 체조는 유연 식체조 1단계부터 3단계 까지 있으므로 지속 적인 것이 좋다.



유연식 목사
우리사랑교회 대표

소진우 목사 2013년-2015년 성회일정

늘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교회와 동역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담임 소진우 목사
PASTOR SO JIN WOO
H·P : 010-8753-7179
교회 : (02) 934-1232(대)

- 열방부흥선교협의회 총재
- 극동방송 칼럼리스트
- CBS TV 칼럼리스트
- 지저스타임즈 사장
- JTN TV, 신문 칼럼리스트

2013년 11월
4-9 선교지방문
11-13 행복한교회(박성일 목사)
18-20 청원제일교회(최준연 목사)
24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25 사광교회 (김창수 목사)

2013년 12월
2-8 2주연속부흥회(예복교회)
9-15 2주연속부흥회(예복교회)
16-16 임마누엘교회(이성현 목사)
30-31 송구영신예배준비기도

2014년 1월
1-3 모란순복음교회(양병열 목사)
4 능곡명성교회(송한철 목사)
6-9 소망교회(조성봉 목사)
13-16 목안장교회
17 한일산기도원 (우정재 원장)
19 천보산기도원 (우정재 원장)
20-22 영광교회
27-30 평온기도원

2014년 2월
3-6 간월산기도원(이복란 원장)
9-12 인천은혜교회
16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17-19 대구열린문교회
21 갈멜산기도원 금요철야(임재 원장)
23 성화교회
24-26 대구중앙교회

2014년 3월
불철 축복대심방
3-5 원천교회(최성근 목사)
16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2014년 4월
7-10 광선수양관(방민석 원장)
13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14-17 축복교회(배성은 목사)
21-22 정기노회
28-1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2014년 5월
1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12-14 나눔교회(최종덕)
19-21 소망교회(박종수 목사)
25-31 특별선사대성회(예복교회)

2014년 6월
2-4 비전교회(양승식 목사)
8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9-13 선교사집중세미나
16-19 변별선교센터(서형범 원장)
23-27 선교지방문

2014년 7월
6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7-10 예복교회(양승식 목사)
14-17 모리교회(이종진 원장)
28-30 전교인여름수련회

2014년 8월
3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4-6 한일산기도원(이영금 원장)
11-14 광은기도원(김한배 원장)
18-21 갈멜산기도원(이복란 원장)
25-28 천문기도원 천문기도원(최정석 원장)

2014년 9월
1-2 중부지역 연합성회
3 성소기도원(박정원 원장)
4 성산교회(유정준 목사)
5-17 은혜성경교회(정순술 목사)
22 예복교회(박종수 목사)
22-25 갈멜산기도원(임재 원장)
28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29-3 선교지방문

2014년 10월
6-8 천호성경교회(이성삼 목사)
12 성문교회(이종재 목사)
13-14 정기노회
14-16 진주기도원(김지홍 원장)
20-23 인천세리교회(김구석 목사)
26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27-27 예덴교회(이종철 목사)

2014년 11월
3-6 여수서광교회(배영길 목사)
10-14 경천교회(이원정 목사)
17-19 소망교회(박종수 목사)
23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24-27 포천제일교회(권희주 목사)

2014년 12월
1-3 성은교회
7-10 김중복 목사 초청 성막예배(내예복교회)
8 경기북노회연합성회
15-19 필리핀사역자컨퍼런스
21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29-31 신년축복을 위한 상산기도

2015년 1월
2 한일산기도원(이복란 원장)
4 안양광은교회(이동환 목사)
5-8 소망교회(박종수 목사)
12-14 은양동기교회(백창기 목사)
18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19-21 갈산교회(김동환 목사)
25-28 담산리침례교회(최종호 목사)
31 갈멜산기도원(임재 원장)

2015년 2월
2-5 갈멜산기도원(이복란 원장)
9-11 원천교회(최성근 목사)
15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16-19 광은기도원(김한배 원장)
23-25 대구중앙교회(양원영 목사)

2015년 3월
축복심방의 달
15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2015년 4월
30-2 갈멜산기도원(임재 원장)
6-10 선교지사역자세미나

12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13-14 정기노회
19-25 삼아특별대성회(예복교회)
27-29 능곡명성교회(송한철 목사)

2015년 5월
4-7 영광교회(주은석 목사)
7 갈멜산기도원(우정재 원장)
10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10-20 불철부흥성회(예복교회)
25-27 소망교회(김주영)
28 성산수양관(윤호균 원장)

2015년 6월
1-3 진전교회(송일우 목사)
7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15-18 모리교회(조선의 목사)
18 오산리금세기도원(함익기 원장)
22-25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29-1 비전교회(김원우 목사)

2015년 7월
5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6-9 에스겔기도원(강인선 원장)
13-16 김해베델수양관(이순지 원장)
20-23 반석기도원(김명숙 원장)
27-30 예덴금식수양관(양희옥 원장)

2015년 8월
2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5-7 한일산기도원(이영금 원장)
10-13 광은기도원(김한배 원장)
17-20 갈멜산기도원(이복란 원장)
24-27 천문기도원(우정재 원장)
30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2015년 9월
31-1 연문사 연수원 수련회(대표회장조경숙 목사)
1 오산리최자실금세기도원(함익기 원장)
3 성산수양관(윤호균 원장)
7-11 은산리복음화(임기호 총재)
14-15 교단총회
14-16 군자대원교회(이희수 목사)
20 주님의교회(오영석 목사)
21-24 임직후보자교육
27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2015년 10월
6-8 성산교회(정재구 목사)
12-13 정기노회
18 새빛교회(장동술 목사)
19-21 영광교회(임승원)
25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25-29 가을부흥성회(예복교회)

2015년 11월
2-5 광선수양관(방민석 원장)
9-11 성일교회(강인원 목사)
16-18 햇빛교회(황인준 목사)
22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23-25 영산교회(박조영 목사)

2015년 12월
30-4 미얀마선교지방문
7-9 살롬교회(고정임 목사)
14-16 반석교회(권승일 목사)
20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28-31 송구영신을 위한 상산기도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복교회

· 기사자첩 ·

고성과 욕설, 총대들의 망가진 매너 없어져야

합동 100회 총회, 장모 부총회장후보 탈락하자 분풀이로 정회 후에도 소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을 따르자며 예수님의 찢기신 몸과 피를 기념하는 거룩한 성찬식에 모두가 성스러운 마음으로 참석했을 것이다. 하지만 성찬이 끝나자 예정합동 총회장은 소란해지면서 총대들의 매너가 무너져 내렸다. 이는 천서권 문제 때문이었다.

이날 백남선 총회장은 겸손과 온유한 마음으로 회무에 임해 줄 것을 당부해 보지만, 총대들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나보다? 총회장은 평동노회 소속으로 부총회장후보로 출마한 장대영 목사의 후보자격 논란으로 가열됐다. 결국 찬반 입장을 듣고, 참석한 총대들의 거수로 평동노회 천서권이 제한되면서, 결국 장대영 목사의 부총회장 후보자격도 상실되면서 분노가 폭발했다.

총대들은 천서권을 제하는 것에 절대 다수가 찬성했다. 백남선 목사는 의사봉(고퇴)를 두드렸다. 장대영 목사는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고성으로 항의했다. 옆에 있는 측근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인민 재판", "빨갱이도 이렇게 안 한다."며 소리를 지르면서 총회장 밖으로 측근들과 함께 빠져나왔다.

천서권 확인이 끝난 후 식사를 하고 저녁에 다시 모이기로 하고 총회장 밖으로 총대들이 몰려 나왔다. 밖으로 나오자, 장대영 목사 측근들로 보이는 인사가 입에 담지 못할 쌍욕을 퍼부었다. 쌍욕을 퍼부는 그를 목회자나고 묻자 그는 목사가 아니라고 했다. 하지만 옆에서는 총회서기 권재호 목사가 장 목사와 평동노회 소속으로 보이는 인사로부터 거칠게 항의를 받았다. 권 목사는 사정을 설명했다.

그러나 주변이 시끄러워지면서 권 목사는 더 이상 대화를 하지 않고, 계단으로 내려갔다. 그러자 또 다시 쌍욕이 들려왔다. 한마디로 "이것도 총회냐?", "돈 받아 처 먹으 이렇게 할 수 있는가?"(불법적



으로 천서권을 제한해 장대영 부총회장후보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가?"라는 말이었다. "책임지라"고 권 목사 뒤통수에 대고 소리쳤다. 권 목사는 얼굴을 돌려 "알았다."고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면서 계단을 내려갔다.

총무시절 바로 이 총회 석상에서 그것도 첫날, 일명 '가스총' 사건으로 교단과 교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직전 총무 황규철 목사가 밖으로 나오자 평동노회 인사들이 우르르 몰려들었다. 그리고 황 목사는 "어디가서 (천서권 제한에 관한 대책을) 이야기하자"고 하자 그들은 총회의장실 옆 '모자실'로 들어가면서 잠잠해졌다.

장대영 목사 입장에서는 억울할 것 같았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자격을 인정을 받았고, 정견 발표도 했다. 교회에도 기도를 부탁했을 것이다. 소소 교회인 평동노회도 마찬가지로 억울할 것이다. 총회 현장에서 잠시 후면 임원선거를 하는 그 마당에 부총회장 후보자격을 제한받았으니 그 딱한 심정이 이해가 간다.

그러나, 총회는 거룩한 모임이다. 그것도 전국의 1만1천여 교회와 자신이 속한 노회를 대표해서 참석한 특별한 선택을 받은 인사들이 총회 총대들이다.

아울러 총회는 세상의 정치적 단체의 모임이나 총회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더 잘 섬기기 위해 회집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장을 하더라도, 억울한 일을 당했더라도 겸손과 온유함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총회 현장에서만큼은 목사와 장로 구별 없이 목을 해낸다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다. 총회장은 엄연한 성스러운 예배당이요 교회이다. 각 교단들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는 몫을 행위가 어찌 이번뿐이겠는가? 과거 똥물 사건을 비롯해 폭행사건 등 한 두건이 아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현재 한국 교회를 대변한다는 총회만 해도 380교단이 넘는다고 한다. 심지어 어떤 교단은 20명도 안 되는 소수가 모인 총회이다.

어쨌거나 2015년 100회 총회를 맞은 장로교 총회, 수 백 교단 중에 망형 같은 예상합동총회가 회개하는 총대들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하며 앞으로 총회를 통해 임원선거 뿐만 아니라 민감한 의제를 다룰 때에도 하나님의 사람들답게, 영적 지도자들답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회무에 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한다.

총회장 안 밖에는 눈과 귀가 많다. 각 언론 신문방송과 인터넷을 통해 긴급하게 방송되고 있다. 전국 총회장 안 밖에서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들, 신문방송 언론들이 많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제부터 한국 교회가 민족복음화를 위하여 성스럽고 모범된 모습을 보여주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총회가 되고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예장(예녹)총회 제2회 정기총회서 광영민 총회장 연임

최선을 다해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는 총회로 우뚝 설 것!

대한예수교장로회(예녹)총회는 지난 21일(월)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에 위치한 예수사랑교회(담임 최금용 목사)에서 "제2회 정기총회"를 은혜롭게 마쳤다.



사무총장 장만천 목사(인천, 주영광교회)가 총진행을 맡은 이날 총회는 1부 예배, 2부 성찬, 3부 회의, 4부 만찬 순으로 진행되었다. 1부 예배는 장만천 목사가 사회를, 영안교회 김정남 목사가 기도를, 총회장 광영민 목사(인천, 등불교회)가 설교와 축도를 각각 맡았다.

총회장 광영민 목사는 행20:17-35절을 본문으로 "복음사명 가진 자"란 제하의 말씀을 선포했다. 각 총회장은 "복음사명 가진 자"는 "1.신령일치의 삶을 산다, 2.영혼사랑의 열

정을 가졌다. 3.회개와 믿음의 사람이다. 4.어떠한 고난도 감수한다. 5.직무 유기치 않는다. 6.이단사설을 경계한다. 7.세상 욕심을 버린다."고 했다.

또한 예녹 총회 설립 2년차지만 모두가 보람을 갖고 최선을 다해 복음전하는 사명을 감당하여, 교단산하 교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질적, 양적 성장을 이루어 나아가자며 당부했다.

2부에 들어가 최금용 목사가 성찬예식 집례를, 주찬양 목사가 성찬위원을 맡았다. 3부 회무처리에는 각부 보고 및 신학교 보고와 안건처리가 이루어졌다. 이날 특이할만한 별다른 안건은 없었지만, 교단 '총무'를 '사무총장'으로 승격하고, 교단 헌법위원회를 결성하여 교단 헌법을 차기 총회에 제출, 통과하기로 했다.

아울러 광 총회장은 설립당시의 교단중심 노선 및 정책을 다시 한번 천명하였다. 1.하나님중심, 성경



중심, 교회중심, 2.종교연합주의 반대, 3.종교다원주의 반대, 4.동성애 반대, 5.여성목사 안수 인정, 6.목사 무 정년제 시행, 7.개역한글판 사용 고수, 8. 교회후임(세습)은 교회 재량에 맡긴다고 했다.

예녹총회 신임원은 총회장 광영민 목사(연임), 사무총장 장만천 목사, 서기 주찬양 목사, 회의록서기 김성기 목사, 회계 최금용 목사(연임) 등이다.

광 총회장은 '먼저 하나님께 영광

을 돌리며, 총회 2회를 맞아 하나님과 사람 보시기에 순수하고, 좋은 교단으로 자리매김을 하는 것에 대해 매우 기쁘다고 했다. 하지만 한국교회가 분열과 분파로 얼룩져있는 상황에서 순수 자생교단인 예녹총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최선의 삶을 경주하는 복된 동역자들로 하나가 되어 서로가 소신에 찬 삶을 갖고 교단발전과 개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힘써 달려야 소감을 피력했다.

백운성 기자

“첫 생일 축하해”... 두개골 거의 없이 태어난 아기 우리에게 주어진 그 아이는 하나님의 뜻인 것”



희귀 질환으로 두개골이 거의 없이 태어난 아기가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는 의료진의 예상을 깨고 첫돌을 맞이해 화제가 되고 있다.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 등 외신은 27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州)에 사는 브랜던과 브리타니 뷰엘 부부의 아들 잭슨 뷰엘을 소개했다.

윤태희 기자서울신문 나우뉴스 '잭슨 뷰엘은 뇌와 두개골 일부가 거의 성장하지 않는 극소 수두무뇌증(Micro-hydranencephaly)이라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다. 미국에서는 태아 4859명 중 1명에게 이런 증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대부분 유산되거나 태어난 직후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



졌다.

그런 잭슨이 지난달 27일 첫돌을 맞이해 의료진은 물론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있다. 잭슨의 부모 브랜던과 브리타니 부부는 사실 임신 중 태아가 그런 희귀 질환을 앓고 있다는 통보를 받았었다고 밝혔다.

부부는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중절

수술을 거절하고 아이를 낳기로 했었다고 한다. 브랜던은 "우리가 누구라고 아이 생명을 결정하겠느냐?"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아이는 하나님의 뜻인 것"이라고 말했다. 부부는 사실 잭슨을 치료하고 양육하는데 있어 경제적으로 풍족한 상황이 아니다. 하지만 아이를 돌보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 24시간 돌봐야 했기에 아내 브리타니는 직장을 관둘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부부는 페이스북을 통해 아이 소식과 해당 질환에 대해 알리고 모금 사이트 고펀드미를 통해서 는 치료를 위한 기부금을 모았다. 잭슨의 페이스북 페이지는 지금까지 '좋아요' 12만 개 이상을 받았으며 고펀드미에는 6만 3000달러 이상의 치료비가 모였다. 부부는 "잭슨이 앞으로 얼마나 살 수 있을지 알 수 없지만 최선을 다해 돌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수두무뇌증과 같은 두개골 기형 질환은 유전자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하지만 임신 중 영양부족이나 음주, 흡연, 특정 약물 복용, 방사선 피폭, 다이옥신 노출, 선천성 독소플라스마증 등의 요인도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런 질환은 임신 4개월 이후 초음파나 양수 검사로 통해 진단 내릴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부는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중절



대한예수교장로회(개혁)총회 대한노회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노회장 장한국 목사님의 총회장 당선을 대한노회원 일동 感谢드립니다.
총회와 노회의 발전에 큰 변화와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고 대한노회원 일동 뭉쳐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대한노회 노회장 장한국 목사 외 임원일동



장 한국 목사



박민규 목사



박명자 목사



유순옥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 주사랑교회

표어 : 새 천년을 새 소망으로 새롭게

· 강도사 : 장정훈 이진영, · 전도사 : 장성철, · 반주자 : 한진경, 한송이



담임 장한국 목사

예배시간안내

예배	시간	예배	시간
주일 대 예배	낮 11시	주일학교	오전 9시
주일저녁예배	오후 2시	학생회	토, 오후 5시
수 요 예 배	오후 7시30분	청년회	토, 오후 6시
새 벽 예 배	새벽 5시	여전도구역예배	금, 낮 11시
금요일아예배	밤 9시	남전도구역예배	매월토, 저녁 6시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금춘대교회
건강하고 보수적인 신앙을 갖게 하는 살아있는 교회
선교에 중점을 두는 교회!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우 473-080]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748 7층

☎031)424-7612(교) HP 010-4436-7060 홈페이지 : http://jlcn.kr



대한예수교장로회 (대한노회) 사무실

경기도 의왕시 계원대학로 10, 대림프라자 701호(내손동)
홈페이지 : http://jlcn.kr ☎ 031)424-7621, H.P 010-4436-7060

요한계시록2장 강해(13)

오른손에 일곱별을 가지고 일곱 금 촛대 사이를 거시는 주님 금촛대 교회는 환란 날에 쓰임 받을 종들인 두 증인들을 배출하는 교회

1절 에베소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일곱별을 가지고 일곱 금 촛대 가운데서 거시는 분께서 이 일들을 맡으시느니라.

계시록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 계시록 1장이므로 계시록 1장이 매우 중요합니다. 창세기가 50장이지만 창세기를 대표하고 총괄하는 것이 창세기 1장입니다. 그래서 창 1:1절부터 열려지지 않으면 창세기는 모르는 것이 됩니다. 코끼리 전체를 알지 못하고 코끼리의 어느 한 부분만을 묘사하여 코끼리 전체를 안다고 말하는 것은 정작 코끼리를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이와 같이 계시록도 1장에서 관철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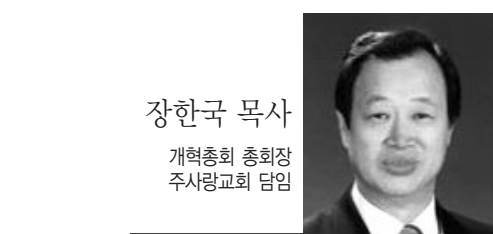
본문의 에베소 교회는 일반교회가 아닙니다. 또 사도요한 당시 소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 중의 하나가 아닙니다. 계시록 2·3장의 일곱 교회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일곱 교회와 명칭이 같고 주님도 똑같은 분이지만 시점이 다릅니다.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는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신 이후에 있었던 초대교회입니다. 그러나 계시록 2·3장의 일곱 교회는 초대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님이 이미 계시록 1장에서 관철되었듯이 시점이 재림하실 예수님에게 두어져 있습니다. 종말의 주의 재림의 때에 속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계시록 2·3장의 에베소 교회부터 라오디케아 교회는 일곱 금촛대 교회로서 여기에서 이기는 자들은 재림하실 주님을 맞이하고 그에 따른 영광을 받습니다. 또 이기는 자는 예수님과 함께 그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영화를 누리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을 금촛대 교회라고 합니다. 신약 마태복음부터 보면 금촛대 교회가 없습니다. 계시록에 와서 비로소 금촛대 교회가 나옵니다. 금촛대 교회가 유일하게 계시록 2·3장의 일곱 교회입니다. 이 금촛대 교회는 구약 스가랴 4장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암 6:6의 포도주를 대접으로 마시고 기름을 온몸에 바르는 자는 은혜가 충만하고 신령한 종들을 맡습니다. 그러한 자들이라도 오십의 환란으로 인하여 대비하지 않으면 짐승에게 앞서 사로잡혀간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성령의 기쁨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운동을 벌리고 있는데 거기에서 멈춰져 있습니다. 스가랴 4장에는 금촛대로부터 흘러나오는 금기름으로 두 감람나무 가지가 발리워졌습니다.

행 2:17에서 말세에는 성령을 받아서 예언하고 환상을 보며 꿈을 꾸다고 했고, 18절에는 또 다시 내 남녀종들에게 내 영, 즉 일곱 영을 부어서 주의 재림 전 어린양의 진노가 있는 그 때에 예언하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행 2:18-21까지의 말씀을 17절과 확연히 구별해서 말씀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인용한 욥 2:28-32 말씀에서도 구별됩니다. 행 2:17절과 18절이 한 절 상간이지만 약 2천년의 간격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배웠는데도 왜 하나님의 진리치식에 이르지 못할까요? 왜 미혹 당하거나 배도할까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건성으로



장한국 목사
개혁총회 총회장
주사랑교회 담임

받았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1장도 대충 건성으로 읽고 계시록 22장까지 건성으로 말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건성건성은 없습니다. 은혜시대 때는 부족한 부분이 있는 사람들일지라도 주님이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십니다.

그러나 환란 날 하나님의 종들은 의로운 순교 제물이 되지 않으면 쓰이지 않습니다. 은혜시대가 끝나고 대환란 날에는 파수꾼이 체면되듯이 하나님의 일꾼이 바뀝니다. 계시록 2·3장의 금촛대 교회는 환란 날에 쓰임 받을 종들인 두 증인들을 배출하는 교회입니다. 이 두 증인들이 금기름 발리운 두 감람나무 가지라고 말씀하였습니다(계 11:4-6).

본문의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가 아닌 금촛대 교회라는 것을 사실적으로 받아들이면 어떤 어둠의 역사에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한 말씀 한 말씀 정성 차려서 들어야 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한 말씀을 받았으면 그 한 말씀을 목숨을 걸고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금촛대 교회인 에베소 교회의 주님은 그의 오른손에 일곱별을 붙잡고 금촛대 가운데를 거닐고 계십니다. 이는 이미 계시록 1장에서 상고한 말씀과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붙잡고 있는 일곱별은 금촛대 교회의 사자입니다. 또 주님이 금촛대 가운데를 거니시는 것은 일하고 계심을 나타냅니다. 금촛대 교회의 주님은 그의 종을 붙잡고 주님의 일을 하십니다. 주님이 어떤 일을 하시나요? 성도들을 돌보고 병고치고, 시험 든 자를 세우는 등 구원의 일을 하시는 것은 일반 교회에 계신 주님입니다.

금촛대 교회에 다니시는 주님은 계 1:13-16의 주님입니다. 그 주님은 제일 먼저 어떤 분으로 나타나셨나요? 발자취 닿는 긴 옷을 입은 왕과 제사장 모습으로 주님이 나타났습니다. 이는 주님이 왕과 제사장의 모습으로 금촛대 교회인 에베소 교회를 다니시면서 에베소 교회를 왕들과 제사장으로 세우는 일을 하고 계심을 말씀합니다. 또 주님의 머리는 흰 눈 같고 양털같이 하얀 분이 에베소 교회를 다니고 계십니다. 이는 최종적으로 금면류관을 씌워주기 위해서 일하시는 주님을 나타냅니다.

또 주님의 입에서 좌우의 날카로운 검이 나오면서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은 주님이 에베소 교회를 다니고 계십니다. 이는 우리의 좌우의 잘못된 신앙을 잘라주시고 올바로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은 큰 능력으로 듣고 믿는 자들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이러한 일들을 이루시는 것을 주님이 다니신다고 표현했습니다.

믿음과 지정의(知情意)

의의단계인 의지로 나타나 행동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믿음이 완성된다!

모든 인간들은 크나 작으나 모두 믿음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인간 세상은 자기 자신 스스로 알든지 모르든지 모두 믿음이 있기에 질서를 유지하며 굴러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믿음이 종교 속에 들어가면 절대성을 갖게 된다. 종교에서 믿음을 빼어버린다면 그것은 종교가 아니다. 종교인을 구별하는 방법도 바로 그가 나가는 종교집단의 믿음의 대상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달려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한국 국립국어원의 표준 국어 대사전에는“어떠한 사실이나 사람을 믿는 마음”이라고 했고, 위클리 대백과사전 등에는“어떠한 가치관이나, 종교, 사람, 사실 등에 대해 다른 사람의 동의와 관계없이 확고한 진리로서 받아 드리는 개인적인 심리 상태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것을 인문학이나 사회과학분야에서는 신념(信念), 즉 확고하게 믿는 마음이라 한다.

특히 기독교에 있어서 믿음은 절대적이다. 그러므로 믿음의 선열들 중에는 순교자들이 많이 있다. 그들은 끝까지 변절치 않고 믿음을 지키다 죽어간 사람들이다. 이러한 믿음은 어떻게 생긴 것일까? 신앙을 고백하고 입술로 ‘믿는다’고 시



주필 송택구 목사
세계 크리스천 영성원 대표

인하면 구원 얻는 믿음이 완성되는 것인가?

인간에게는 지정의(知情意)라는 심리적 패턴이 있다. 인간들의 믿음과 행위는 이 지정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지정의가 조화를 이루고 균형 잡힌 사람을 인격자라 한다.

그럼 지정의란 무엇인가?

지(知)는 ‘알 지’자로 머리로 아는 이성적 지식을 말하고, 정(情)은 ‘뜻 정’자로 마음속에 일어나는 감정이나 충동을 말하며, 의(意)는 ‘뜻 의’자로 감정 속에 일어나는 충동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의지를 말한다. 이 세 가지의 패턴들을 살펴보자.

첫째 머리인 지(知)만 발달하고 정(情)이나 의(意)가 부조화 하면 냉혹한 인간이 되거나 언행일치가 안 되는 허풍쟁이, 거짓말쟁이, 자기

꿈이 된다. 둘째로 정(情)만 발달한 사람은 쉽게 흥분하고 충동적이며 윤리적이나 도덕적 죄책감을 못 느끼는 채 충동적으로 행동하여 사고를 치며 때로는 우울증에 시달려 자학하거나 자살, 또는 살인까지도 할 수 있다.

또한 개인들 간에도 반향적이며 순응치 않고 종종 비정상적으로 다양한 증후군이 나타난다. 세 번째 의(意)가 강한 사람은 어떤 사안에 대해 깊이 생각지 않고 즉흥적인 행동이 먼저 앞서는 사람들인 경우가 많다. 이러한 사람들 중에는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야 후회하는 경향이 있다.

이와 같이 믿음도 지정의의 심리적 3단계를 거치며 균건해 지는 것이다. 히브리서 11장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하고 있다. 믿음은 내 생각 속에 일어나는 사유이므로 눈으로 볼 수가 없다. 그러나 그것을 실제의 사건으로 믿고 마음 관에 새겨 이미지화(Image)시키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 하였다.

그러므로 믿음은 머리로만 알았다고 해서 믿음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정적단계인 가슴으로 내려와 심비(心碑)에 새겨지고 이것이 의의 단계인 의지로 나타나 행동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믿음이 완성되는 것이다. 이렇게 믿음과 지정의(知情意)는 서로 비례하며 조화를 이룰 때 완성되어 진다. 그래서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다.

| 칼럼 |

가치관의 변화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힘든 것은 가치관의 변화이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주님과 3년동안 한 솥밥을 먹으며 생활했다. 그리고 주님과 가정#160:가까이에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개인 고습을 받았다. 그리고 기적도 수없이 경험했다. 그러나 제자들의 가치관은 언제나 세상에 고정되어 있었다.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말씀 하실 때도 그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스승)를 통하여 “아망과 소원”을 성취할까하는 것이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려할 때에도 그들은 기독교와 정치적 순의 계산에 혈안이 될 만큼 세속적인 것에 깊은 관심을 궁구하였었다.

이런 한심한 일들이 오늘날 교회와 총회 안에서 비밀비재하게 일어나곤 한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부르짖으면서도 정작 결정적인 순간에 돌입하면 세속적인 성공기준과 부의 기준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다. 그러므로 자유를 갈망하면서도 실제적으로는 노예의 모습으로 인생을 살려한다. 우리의 불행의 원인과 절망의 이유와 열등감의 뿌리가 어디 있는가?

“가치관의 세속화”라고 생각한다.

바울의 삶의 뿌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였다. 따라서 감옥에 갇혀 있어도 감옥 밖에 있어도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유명한 때

나 무명할 때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아니했다. 바울이 주장하는 삶의 원동력은 하나님나라에 대한 가치관으로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왜 우리 만족하지 못하고 개운치 못한 신앙을 혹은 목양을 쳇바퀴 돌리듯하는가? 가치관의 오해와 왜곡 때문이다. 우리가 그토록 원하고 악착같이 붙들려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목적일까? 꼭 눈에 보이는 실적을 올리고 유명세를 타고 통장에 잔고가 늘어나고, 집권수가 늘어나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의 외모와 소유를 가진 것이 성공일까? 또한 진정한 축복일까? 그렇다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지금도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지만 일년 이 가도 한 영혼 구원하기가 어려워 발을 동동 구르며 목양하는 오지의 무명의 목회자와 선교사님들은 다 실패한 사람이며 무능한 사역자일까?

저 두메산골 혹은 외딴섬에서노인 몇 명을 놓고도 한번뿐인 인생을 걸고 목회 현장을 지키는 사역자들은 다 실패하고 별 불일 없는 목회자일까? 나는 나보다 더 유식하고 더 능력있는 분들이 하나님의 소명을 안고 그것이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한 것으로 아는 목회자들을 보면 저절로 머리가 숙여진다. 나는 한이 없이 작아 보이고, 어디에 살고 생각이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누가 더 신실한 사람이라고

할까?

어떤 교인은 말하기를 내가 죽더라도 돈 버락이나 한번 맛아 보았으면 여한이 없겠다고 한다기에 그 소리를 듣는 나의 귀를 의심했다. 또 복권이나 사서 지갑에 넣고 다니며 점집을 여기 저기 기웃거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리를 들을 때 소스라치게 놀란적이 있다. 과정이야 어떻든지 성도수가 많고 세속적인 성공을 하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자신을 과신해도 되는 것일까? 성도가 자신의 자녀가 매주일 교회에 열심히 나가고 봉사하는데 집집 아이는 교회 열심히 안나가며 돈을 많이 벌어 온다고 그것이 축복일까?

아니다. 그러면 안 된다. 그것은 세속적인 잣대이다. 물론, 성공도 물질도, 형통도, 건강도, 필요 없다는 의미로 오해해서는 안된다. 우리의 우선순위를 말하는 것이다. 성경이 말씀하신 진정한 성공이 무엇일까? 그것은 단 한번뿐인 삶을 복음을 위해 거는 것이다. 따라서 바울과 같은 수많은 종들은 좁은 길을 걸으면서도 반딧기빠한 것이 다 결국 주님이 생각하시는 영광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였다!

박형취 목사

성원교회



지저스타임즈는 광고와 구독료로 신문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저스타임즈 및 JTNTV방송 독자 제위께

본 신문사와 인터넷신문 JTNTV방송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독자 여러분의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 일터위에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길 기도드립니다.

지저스타임즈와 JTNTV방송은 선교비 및 광고비와 구독료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연간 48,000원은 우편요금과 종이 값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독자 여러분의 자유로운 납부제도를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서선교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본보와 JTNTV인터넷방송의 운영을 위하여 끊임없이 구독료와 선교비를 보내주시는 모든분들께 직원들과 함께 감사드립니다.

지금껏 구독료와 선교비를 보내지지 않은 독자님들께서는 꼭 기억해 주시길 원하며 내내 강권하시길 빕니다.

지저스타임즈

발행인 정기남

· 후원 계좌 하나 : 758-910292-36807 정기남
농협 : 455030-56-005509 정기남
우체국 : 110-003-518810 정기남

계좌로 구독료를 보내실 때는 반드시 독자의 실명으로 보내주시며
010-5468-6574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 존경하는 독자님들의 구독료로 언론방송신문을 도와주십시오. 1년 48,000원



지저스타임즈
THE Jesus Times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지양로 176번길 32호 대운빌라 2층 202호
TEL 070)8230-0034, FAX겸용 032)672-3031, H.P 010)5468-6574
E-mail : jtppress@hanmail.net / jtntvcjp@naver.com



예장합보 제100회 총회, 총회장 이규필 목사 연임

하나님이 묶어주신 하나의 공동체인 총회를 위해 최선을 다짐!

대한예수교장로회(합보)총회가 지난 9월 17일 오후 1시30분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153길 동천교회 본당에서 제100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신임총회장에 현 이규필 총회장은 총대원 전원 만장일치 찬성으로 연임되었다.

합동보수 제100회 성 총회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 가는 총회'(행 9:31)라는 주제로 열린 총회는 총회장 이규필 목사(동천교회)의 인도로 1부 예배를 시작하고 부총회장 전예희 목사(신광교회)가 기도를, 서기 임상국 목사(전북복지교회)가 성경봉독(행9:31)하고, 이규필 총회장은 "평안하여 든든히 서 가는 총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다. 이어 총무 조영만 목사(시온교회)의 광고, 증경총회장 윤석철 목사(대구전복교회)의 축도로 마쳤다.

2부 성찬식은 증경총회장 서동기 목사(서울소망교회)의 집례로 진행되는데 이어 3부 회무처리에 들어가 제100회 총회 신임원은 총회장 이규필 목사(한중교회), 부총회장 전예희 목사(서인교회), 서기 임상국 목사(대구교회), 부서기 주지광 목사(경남교회), 회의록서기 서재식 목사(서인교회), 부회의록서기(신임) 김상대 목사(수원교회), 회계 송인섭 장로(한중교회), 부회계 이점수 장로(대구교회) 등이 유임 및 선출되었다.

총회장 이규필 목사는 '2016년에도 열심히 일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많은 기도와 응원을 부탁하고, 제100회 6월 수양회는 제주도에서 가질 것이며 총회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될 것을 약속'하고 이어



각 상비부 조직과 모든 안건은 신임원에게 일임하고, 총회장 이규필 목사의 폐회예배와 축도에 이어 폐회를 공포하고 합동보수 제100회 성 총회를 마쳤다.

한편 이규필 총회장은 설교를 통해 "100총회를 뜻 깊게 보내자는 축하의 인사말씀을 전하고, 본문 내용을 중심으로 초대교회의 큰 풍량이 한번 지나가고 잠시 평안하여 든든히 서 가는 예루살렘교회가 되었다고 했다. 일평생 살면서 고난, 시련, 연단, 시험은 끊임없이 찾아온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고난 받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담 이후의 모든 인생은 고난 받기 위해서 태어났으며, 주의 일하면서 값진 고난을 경험하고 있다. 마5장에서 팔복을 보면 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하셨다. 죄짓고 고난 받고 시련 받는 것이라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받는 고난은 유익이라고 했다. 옛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고난을 받았다. 우리의 선조들도 그랬듯이 이후의 사람들도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려면 부득불 고난

이란 과정을 겪어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바울은 롬14:17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셨듯이 오늘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기를 기원하고, 또한 평안하여 든든히 서 간다는 언어는 건축용어로서 영적인 집을 지어야 하며, 우리는 목회적인 집, 목회사역에 늘 축복이, 아름다운 목회사역이 일어나기를 축원했다.

오후 2:20절에서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고 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총회와 노회들이, 목회자와 성도들끼리 서로 연결되어서 주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이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는다고 했다. 우리가 자라지 않으면 사람도 자라지 아니하고, 생명 있는 모든 생명이 자라지 아니하면 그 역할은 끝난 것이나 다름없다. 오늘 우리에게 총회라고 하는 하나의 공동체를 우리 하나님이 묶어주셨다고 했다.

그러므로 우리 총회와 노회들이 이 또한 목회자들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성령으로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의 역할을 잘 할 때 총회도, 노회도, 교회도, 사역에도 큰 기쁨이 있게 되는 줄로 믿는다고 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길을 걸어가 때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셨다면서 신 8:2절에서 '너희로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고 하셨

으며 3절에서 만나



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하셨다.

목회사역에 있어서 오르막길이 있는가 하면 내리막길도 있는데 신 경 쓸 일이 있는가 하면 괴로운 일도 있고, 때로는 평안한 날도 있다. 그러나 목회에 힘든 시기가 항상

그 시대마다 힘들고 어렵지만, 오늘 우리 모두는 100회기를 맞아 새롭게 출발하는 총회가 되자며 말씀을 전했다.

이날 총회장 이규필 목사는 100회기를 기념하면서 총회발전을 위하여 노력해주시는 증경총회장 윤석철 목사, 서동기 목사에게 공로패 및 금 십자가를 증정하고, 증경총회장 서동기 목사는 이규필

총회장에게 공로패 및 금 십자가를 증정했다. 또한 이 총회장은 증경 부총회장 강대일 목사, 지저스타임즈 대표 정기남 목사(증경부총회장)에게 총회발전을 위한 홍보활동에 기여하였기에 공로패 및 은 팔지를, 부총회장 전예희 목사에게 공로패를 증정하고, 모든 총대들에게 선물과 교통비를 지급하는 등 화기애애한 가운데 발길을 돌렸다.

예장개신/개혁(일부)합동, 총회장에 박영길 목사 선출

대한예수교장로회(개신/개혁 연지동측 일부)총회 양 교단은 지난 22일 오후 2시 서울 성북구 중앙중앙교회(조성환 목사)에서 합동총회를 개최하고 신임 총회장에 박영길 목사를 선출했다.

'연합하여 하나되는 총회'(시 133:1~3)라는 주제로 열린 총회에 앞서 1부 합동예배는 하급식 목사의 인도로 시작되어 부총회장 박찬권 목사가 기도를, 총회장 박용 목사는 "변화의 때"라는 주제로 말씀을 선포한 후 개신대학원대학교 명예 이사장 조경대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2부 회무처리에 들어가 송천

동측 30개 노회, 개신측 11개 노회 등 총 41개 노회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선언문에서 "역사적인 100회 총회를 맞이하여 개혁신총회와 개신총회는 개신대학원대학교와 함께 통합하여 이제 하나가 됨을 선언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교단 합동과 관련 △교단 명칭은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으로 한다 △2007년 중앙중앙교회, 경기1노회 재판국, 개혁총회 재판국, 대법원 확정 판결로 면직 출퇴된 자는 교회법과 사회법대로 시행한다 △총회 인준 신학교는 개신대학원대학교로만 한다 △합동 이후 학적 미비자(M.Div. 과정)들은 총회가 목회자 학적 복원을 절차에 따라 개신대학원대학교에서 실시하고 학적을 개신대학원대학교로 정

리한다 △목사장년제는 폐지한다 등의 내용이 합의했다.

한편 교단지 '정통개혁신문'(격주간)을 발행하며, 개혁 종로측과도 계속 합동을 추진하고 아울러 개혁신학대학원대학교가 총회신학교임을 재확인했으며, '후속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오는 10월22~24일 중앙중앙교회에서 '속회 총회'를 열기로 했다.

이날 추대된 임원은 △총회장 박영길 목사(경인교회) △부총회장 박용 목사(수도교회) 도명복 장로(수도교회) △서기 하급식 목사(전북동교회) △부서기 남성균 목사(한남교회) △회의록서기 윤양호 목사(여수교회) △부회록서기 조성환 목사(경기1노회) △회계 김영수 장로(경기1노회) △부회계 신기완 장로(인경교회) 등이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보수 제100회 총회

표어 : 평안하여 든든히 서 가는 총회(행9:31)

감사합니다. 총회발전과 민족복음화를 위하여 열심히 뛰겠습니다.

총회장 이규필 목사 외 임원일동



※ 합동보수교단 소속 신학교는 신학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보수)총회사무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153길 94 (가산동 151-47 동천교회) ☎ H.P 010-7474-3173, (02)854-1326, 496-0181(FAX)

총회신학대학원
총회신학대학원

경남신학원
학장 정 호 석 목사

사단법인 예장합동보수연합선교회
이사장 이 규 필 목사

서울신학연구원
학장 박영석 목사(서울시 은평구 신사1동 20-168)
H.P 010-5325-3893

전국 교회 주일예배 안내

☎ 게재문의 : 010-5468-6574

대한예수교
장로회 동천교회



담임 이규필 목사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30분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153길 94
전화 : (02)854-1326, H.P 010-7474-3173

대한예수교
장로회 신광교회



담임 전예희 목사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인천시 부평구 부개1동 396-79
☎ (032)505-3351

시온교회



담임 조영만 목사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오전 11시 30분
오후 2시 30분

인천광역시 남구 구월동 1146-6 에스파스 B02호
☎ (070)7501-2584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소망교회



담임 서동기 목사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3시

서울시 노원구 하계동 163-1
☎ (02)3296-0340

대한예수교
장로회 평안교회



담임 강대일 목사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서울시 중랑구 상봉 1동 40-5
☎ (02)433-0291(교)

대한예수교
장로회 천복복지교회



담임 임상국 목사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1시 30분
수요일 오후 7시 30분

대구시 북구 동변동 U선수촌 213-703호
☎ (053)741-7732, 070-4220-7735

대한예수교
장로회 풍성한교회



담임 서재식 목사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경기도 시흥시 신천동 707-58 401호
☎ (031)315-8290

대한예수교
장로회 설만한물가교회



담임 김안식 목사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오전 9시
오후 11시
오후 2시

충북 청주시 상당구 사천동 446-9번지
TEL 043) 217-0191, 070-8666-0691

대한예수교
장로회 수목원교회



담임 최순진 목사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30분
수요일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시 교육관
매주 금요일아기기도회 밤 9시 4층 교육관

서울시 구로구 오류2동 343번지
☎ (02)2683-2091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심교회



담임 사금열 목사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1부예배 오전 10:30
주일 2부예배 오후 1:30
수요 밤 예배 오후 7:00
금요일기도회 오후 9:00
심야정경기도 오후 9:00(365일)

주소 :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114-4
H.P : 010-5225-1253

대한예수교
장로회 사랑의교회



담임 홍황표 목사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한경총 사무총장
사도영성신학연구원 원장

서울시 구로구 개봉3동 370-40
☎(02)583-1955 H.P:010-7585-1955

대한예수교
장로회 중흥교회



원로 임신헌 목사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오전 7시 11시
오후 2시 5시

한경총 증경총회장

서울시 강동구 성내3동 430-2
☎(02)476-7131

대한예수교
장로회 과천영락교회



담임 허식 목사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한경총 증경총회장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이동 535-5 센스빌딩 4층
☎ (031)416-8290

은총 기도원



원장 주은총 목사

주 일 예 배 안 내

◇ 매월 첫째 주(월-목)정기집회
(세계주영광 부흥사회 주관)
◇ 매월 셋째 주(월-목) 정기집회
(지저스타임즈 언론부흥사협회주관)
◇ 매월 넷째 주(월-목) 정기집회

(세계주영광부흥사대표호장)

인천시 남구 주안 2동 486-27(2층)
☎ 010-6327-0191, 070-7518-8195

대한예수교
장로회 흥성제일교회



담임 오종설 목사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주일밤 오후 7시 30분
수요일 오후 7시 30분

충남 홍성군 홍성읍 내포로 146번길 36-8
☎(041)634-0441(사무실) 633-6146(목양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새용진교회



담임 이상중 목사

주 일 예 배 안 내

일 낮 오전 11:00
수요일 오후 8:00
새벽기도회 새벽 5:00

우) 55353 전북 완주군 용진면 원구역2길 15-5
전화 : 063)244-2374 010-9696-6377

대한예수교
장로회 세계로교회



담임 정석진 목사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예배 오전 11시
주일찬양예배 오후 1시
수요 예배 오후 7시 30
금요일기도회 오후 9시

부산시 부산진구 동평로 119길 18호
H.P 010-3950-5049

기독교대한
하나님의성회 수원할렐루야농아교회



담임 임혜묵 목사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수요일 오후 8시
금요일기도회 오후 9시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호동로 62
☎ (031)224-4947 H.P 010-4611-3221

주성청각장애인교회



담임 박용숙 목사(우울초)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3시
수요일 오후 7시
금요일 오후 8시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동 288-6
☎(02)414-1191 H.P 010-3775-5154

장기요양기관(행복의집)



원장 권순중 목사

가족처럼
어르신(환자)을 모십니다.
(등급판정-1급 ~3급자 환영)

www.1004tv.net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늑구리
☎(033)541-0687 H.P 010-7405-9191

강릉정동진 산성그리스도의 교회



담임 최낙헌 목사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오전 10시 30분
오후 1시
오후 1시 30분
오후 2시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산성우리 256-12
☎ (033)655-0691, 0692 H.P 010-6409-0091

대한예수교
장로회 공덕교회



담임 서명범 목사

주 일 예 배 안 내

장로 : 송두현, 박성현
정립집사 : 강정구, 황규형
주일 1부 오전 11시
2부 오후 3시
수요일 오후 8시
금요일 오후 9시

충남 공주시 일락산2길 6-1(봉황동)
☎ (041)853-9966 http://lov153.cafe24.com

기독교대한
성결교회 두란노교회



담임 광완국 목사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1부 오전 11시
2부 오후 2시
수요일 오후 7시

충남 공주시 봉황동 96번지
☎(041)854-3676 H.P 018-320-1507

조에 교정선교회



담임 유순옥 목사

조에/생명살리는 교정선교
청송교도소
청주교도소
춘천교도소
직훈(직업훈련소)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장내로 89번길 9-1 102호(안양동)
☎(070)8632-6993 H.P 010-3035-5704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복교회



담임 소진우 목사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1부 오전 9시30분
2부 오전 11시
주일저녁 오후 7시
수요일예배 오후 8시

경기도 의정부시 노원로40 수락리비시티 2단지 옆
☎(02)934-1232

대한예수교
장로회 전원중앙교회



담임 정기환 목사

주 일 예 배 안 내

1부 주일 오전 11:00
2부 오후 1:30
주일저녁 오후 7:00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75번길 30-5
☎(032)321-9109

대한예수교
장로회 성현교회



담임 박형휘 목사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화요일 화요일성경공부
수요일예배 오후 7시30분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39-17
☎(02)593-3909

대한예수교
장로회 남현교회



담임 이훈복 목사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1부 오전 7시30분
2부 오전 9시30분
3부 오전 11시30분
4부 오후 2시30분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346(개봉동)
☎교회(02)2618-8877-8 당회장실(02)2684-3317

대한예수교
장로회 새생명교회



담임 박민규 목사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오전 10시30분
오후 2시00
수요일예배 저녁 7시00

경기도 양주시 남면 구암리236-4
☎(02)385-2571/010-9621-9627

대한예수교
장로회 유성교회



담임 오진철 목사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예배 오전 11시
주일오후예배 오후 2시
수요일 오후 7시
새벽기도회 새벽 5시30분

대구시 동구 신덕로5길 99
H.P 010-8914-0969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광제일교회



담임 이기웅 목사

영적대각성운동본부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오전 11:00
오후 2:00
수요일예배 밤 8:30

경기도 광주시 목동 378번지
☎수양관 031)769-0692-3

대한예수교
장로회 등불교회



담임 광명민 목사

◆예장(예능)총회장
◆등불교회 담임
◆예수능력치유센터 원장
◆예능부흥사관학교대표회장
◆지저스타임즈본사무국장
(인천지사장,언부협사무총장)

인천시 남구 능해길5(송의1동)
☎032)891-0651, 010-2080-0651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

(행 10:9-20, 31-33)

오늘 말씀은 유대인에게 주셨던 율법 중 성결법에 대한 그리스도 안에서 의 개혁 되게 하신 역사를 말씀해 줬다.

베드로 사도가 몹시 시장하여 먹고자 했을 때 기도 중 환상을 보며 하늘에서 내려온 보자기에 많은 종류의 짐승, 기는 것, 새 등을 보여주며 베드로로 잡아먹으라 하셨다. 그러나 베드로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나는 결코 속되거나 불결한 것을 먹은 적이 없나이다.” 하고 대답했다. 이 말은 그가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만 어릴 적부터 율법을 따라 철저히 음식에 대한 성결을 지켜 왔다는 뜻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깨끗게 한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신다. 이는 먼저 알 것은 신약시대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음식을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이 거룩케 한 것이니 감사함으로 먹으라는 말씀이다(딤후 4:3-4).

그 다음은 본문 28절 말씀과 같이 고넬료와 그의 사람들 같은 이방인들을 가리킨 것입니다. 그들이 비록 율법 따라 살아온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지만 그들을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셨다는 말씀이지요. 어떻게요? 그들 몸속의 아들의 영이 있고 그 아들의 영들은 이미 멸기세덱으로 구원해 놓은 하나님의 자기백성들이라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불행자들은 깨끗한 것이 아니지요(요 13:11).

“너희가 먹을 수 있는 정결한 것은 이것이니라.” 레 11:3, 9, 13절 이하에서 말씀하셨다. 짐승 중 정결한 것은 돼새잡질 하고 굶이 갈라진 것이라 하였으니 하나님 말씀을 통해 그 속에 담긴 진리를 깨닫도록 되새기는 것과 영적 세계를 분별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성결법이 바뀐 것이지요. 또 물고기 중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처럼 향방 있는 신앙, 믿음의 방패로 신앙무장한 자들을 가리킵니다.

새들 중 야행성 조류가 아닌 것처럼 진리 빛 안에서 영생의 열매 맺는 생령 가운데 사는 자와 또 육식조류가 아닌 곡식 조류가 정결하니 남을 상처주거나 해롭게 아니하고 오히려 남의 영혼을 살리는 생령으로 사는 자들이 바로 정결한 신앙인이란 것을 계시하셨다. 그래서 이방인 고넬료가 베드로를 요청한 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였나이다.’ 하여 복음과 구원의 진리를 듣고 회개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됐으니 이것이 곧 베드로 사도의 참 양식이 되고 있음을 계시한다.



장한국 목사

예장개혁, 제100회 신임총회장 장한국목사 당선

성령으로 하나 되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총회(행9:31)라는 주제로 대한예수교장로회(개혁신) 제100회 정기총회가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주 사랑교회(장한국 목사)에서 지난 9월 22일(화) 오후 1시 개최되어 성 총회에 앞서 1부 예배를 드린 후 회무처리에 들어가 임원선거에서 신임총회장에 장한국 목사, 부총회장에 조재호 목사가 당선되었다.

1부 예배에 제1부총회장 강성희 목사의 인도로 수도노회장 김중환 목사(평안교회)가 기도, 회의록서기 임순중 목사의 성경봉독(고후1:12~14), 총회장 김정열 목사(중부노회/새예루살렘교회)는 “나의 자랑”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총회회계 박민규 목사가 봉헌기도를, 서기 조재호 목사의 광고, 증경총회장 최평국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2부 성찬식에는 제2부총회장 장한국 목사의 집례로 분별위원 오진철 목사, 김정미 목사, 분찬위원 조조복 목사, 박종언 목사, 장 부총회장의 설교와 축도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어 3부 회무처리에 총회장 김정열 목사의 사회로 증경총회장 이은우 목사의 기도, 서기 조재호 목사의 회원점명으로 제100회 정기총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임원선거에서 모 총회장 후보의 규칙상 자격미달로 정회를 선포하고 총회 공천부는 증경총회장, 임원 및 각 노회장 연석회의를 1시간 30분

우리는 선한증거자로 마지막 때 외치는 자가 되어야



여분간 갖고 무기명 투표로 결정하고, 현 총회장 김정열 목사, 제1부총회장 강성희 목사, 제2부총회장 장한국 목사를 총회장 후보로 무기명 투표가 진행되어 강성희 후보 7표, 김정열 후보 2, 기권 2, 무효 3표, 장한국 후보가 앞도적인 지지를 얻어 제100회 개혁신총회 총회장으로 당선되었다. 개혁신총회 제100회기 신임원은 다음과 같다.

총회장 장한국 목사(대한노회/주사랑교회), 부총회장 조재호 목사(경기노회/우리교회), 서기/총무 임순중 목사(대전노회/큰성산교회), 부서기 조조복 목사(새서울노회/새서울교회), 회록서기 오진철 목사(초대노회/유성

교회), 부회록서기 이영희 목사(한중노회/유전교회), 회계 박민규 목사(대한노회/새생명교회), 부회계 정미연 목사(수도노회/은성교회), 감사 정석진 목사(부산노회/세계로교회), 김종열 목사(수도노회/평안교회) 등이다.

총회장 장한국 목사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사역자들이 되자, 또한 선한 증거자로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흠 없고, 실망할 것 없는 선한증거자로 선한고백을 하면서 마지막 때 외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지금 이 세상은 음녀 바벨론이 되어가고 있고, 조직신학이 변질되어가고 있는 것은 모든 종교가 다 구원이 있다고 한다.

우리 개혁신교단이 추구할 것은 선한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과 순교도 각오하는 종들로 사역에 힘을 것을 강조했다.

지금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 환난의 때가 가까웠음을 느끼고 있다면서, 우리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흠 없고, 점 없는 준비된 종들로 승리하는 총회의 총대들이 될 것을 기원했다.

또한 총회장 장한국 목사는 총회발전을 위하여 “중요한 것은 지금 영적으로 혼탁하고 타락해졌고 진리가 가려지고 쇠퇴해 가는 이때 본 총회는 빛을 발하는 교단이 되는데 힘쓰겠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사랑을 외치지만 진리가 어두워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이 드러나지 않고 있는 때이다. 본 교단은 이 시대를 깨우치는 영원한 진리의 말씀, 주의 재림에 관한 예언에 관한 말씀에 대해 관심이 없는 이때, 주님이 주신 총회장의 직임을 감당하면서 최대한 총



대한예수교장로회[개혁신]총회 제100회 신.임원

주제 : 성령으로 하나 되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총회(행9:31절)



장한국 목사
대한노회/주사랑교회



조재호 목사
경기노회(우리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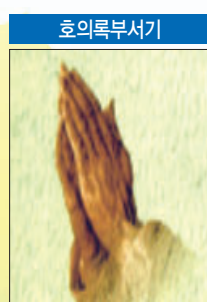
임순중 목사
대전노회(큰성산교회)



조조복 목사
새서울노회(새서울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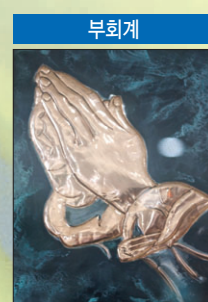
오진철 목사
초대노회(유성교회)



이영희 목사
한중노회(유전교회)



박민규 목사
대한노회(새생명교회)



정미연 목사
수도노회(은성교회)



정석진 목사
부산노회(세계로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개혁신총회

주소 :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748(대림프라자, 고층 7층) 전화 : ☎ 031)424-7612
총회장 : 장한국 목사, 서기/총무 : 임순중 목사 (010-6413-3456)

카톨릭' 마리아 숭배' 교리실체 (2)

마리아는 원죄 오염 없이 잉태하였다? 성경적 근거 없어

본지는 카톨릭 '마리아 숭배' 교리에 대한 조영엽 박사의 비평을 연재하고 있다. 지난호 '하느님의 어머니' 성모설 비평에 이어 마리아가 원죄 없이 잉태하였다는 카톨릭 교리의 비평을 게재한다.

2. 카톨릭의 '마리아 원죄 오염 없는 잉태설' 비평

카톨릭 교리 / 중세 철학자요 가톨릭의 대표적 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Aquinas, 1225-1274)는, '마리아에게 불멸의 영혼이 주입된 후, 그녀는 원죄로부터 자유로운 존재로 은혜를 입을 수 있었고 또 은혜를 입었다. 마리아는 원죄 없이 태어났다'고 믿었다. 가톨릭에서는 토마스 아퀴나스가 마리아의 무죄설(원죄)을 주장한 이래 약 600년이 지나서 소위 255대 교황 비오 9세(Pius IX)는 온 세계의 모든 감독들과 상의한 후 1854년 12월 8일 마리아의 '원죄 없으신 잉태'를 선포하였다. "가장 복된 동정녀 마리아는 그녀가 처음에



그녀의 어머니 몸에 수태되었을 때 원죄의 모든 오염으로부터 면죄되어 완전하게 보존되었다."

가톨릭교회교리서 제 411조, "...그녀(마리아는 원죄의 모든 오염A로부터 보존되었으며" (--She was preserved from all stain

of original sin..)

제491조, 교황 비오 9세 "1854

년 선포한 바와 같이 가장 복된 동정녀(처녀) 마리아는 잉태되는 첫 순간부터 전능하신 하느님의 특별한 은총과 돌보심으로.. 모든 원죄에 조금도 물들지 않게 보존

되었다.

제492조, '하느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녀를 택하시어 사람으로 당신 앞에서 거룩하고 흠 없도록 하셨다.'

제508조, "마리아는 잉태되는 순간부터, 원죄에서 완전히 보호되고, 일생동안 본죄(本罪, Actual Sin)에 물들지 않았다."

제966조, "마침내 원죄의 모든 오염으로부터 보호된 티 없이 깨끗한 동정녀는 지상생활을 마친 후에 육신과 영혼이 천상 영광으로 들리움을 받아 주님께로부터 만물 위에 여왕으로 존귀케 되었다 ..."

비평 (A Critique) / 상기와 같이 가톨릭에서는 '...마리아는 그녀의 잉태되는 첫 순간부터 ... 모든 원죄에 조금도 물들지 않게 보존되었다...마침내 원죄의 모든 오염으로부터 보존된 티 없이 깨끗한 동정녀 ...' 라고 하므로 마리아의 무죄 잉태설을 주장한다.

'원죄의 오염으로부터 보존된 티 없이 깨끗한 동정녀 마리아? 원죄는 아담 하와가 지은 죄를 말하며, 원죄의 오염은 아담 하와의 육신의 혈통을 따라 후손들

에게 전가되는 유전죄를 말한다.

그런데 마리아는 '모든 원죄에 조금도 물들지 않게 보존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면 마리아는 아담의 후손이 아니란 말인가?

마리아가 원죄의 오염 없이 태어났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이 교리가 성경으로부터 나왔다'고 할 수 있는 직접적이고 절대적인 설득력있는 증거란 전혀 없다. 오히려 이러한 생각들(개념들)은 가톨릭 내에서 점차적으로 발전된 것으로 마리아의 원죄 없는 잉태설이 비성경적임을 스스로 자증(自證)하였다.

원죄와 유전죄의 모든 오염으로부터 자유롭게,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 하나님의 직접적이고 초자연적인 신비의 역사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이 세상에 오신 참 하나님이시요 동시에 참사람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도신경(Apostle's Creed)은 '성령님의 잉태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라 고백한다.

따라서 마리아가 원죄 없이 잉태하였다는 주장은 마리아를 우상화, 신격화하려는 비성경적인 주장일 뿐이다.

윤광식 기자

日本, 그리고 獨島와 韓國(5)

〈세종실록〉지리지에는 지지의 체제를 갖춘 현정하는 최고의 독자적인 전국 지리지이다. 이 책은 조선건국 후 수도의 한양 천도와 1413년(태종 13) 군현제의 대개편에 따른 한양 중심의 새로운 조선의 지역 편제를 바탕으로 국가 통치체제의 확립 자료로 편찬된 것으로, 당시의 전국 각 지역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또한 사회·경제·행정·군사적인 내용을 정확하고 상세하게 기록한 특징을 지니고 있어 후대의 지지들과도 대비된다. 그러나 실록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조선시대에는 거의 이용되지 못하다가 20세기에 들어 실록의 보급과 함께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1937년 조선총독부 중추원에서 〈교정세종실록지리지〉를 간행했으며, 한국에서는 1929~32, 1955~58년, 일본에서는 1953년 실록 축소 영인본 속에 포함되어 있다. 1975년에 실록 국역사업의 일환으로 세종대왕기념사업회에서 우리말로 번역을 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 지리지 색인이 별책으로 간행되었다.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다. 일본 정부가 1940년대에 독도를 자국의 국유재산대장에 등재하고 공식지가를 산정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아사히신문은 3일 일본 재무성이 1945년 11월부터 독도를 '다케시마(原野)'라는 명칭으로 국유재산 대장에 등재해 왔다고 전했다. 재산의 종류는 미개척 벌판을 의미하는 '원야(原野)', 면적은 23만 371.89㎡(약 7만평)이다. 대장성(옛 재무성)이 1945년 일본군 해군성으로부터 2000엔(약 2만9000원)에 독도의 소유권을 넘겨받아 국유재산목록에 등재했다.

일본정부는 독도를 국유재산에 등재하면서 공식지가를 산정해왔다. 2001년에는 532만엔(약 7685만 3252원), 2010년에는 500만1825엔(약 7225만7254원), 지난 3월 말에는 437만 1594엔(약 6315만 2484원)으로 하향추세이다. 공식지가는 비슷한 규모의 섬



논설위원 최순길 목사
수목원교회 담임

토지가격에 따라 산정했는데, 독도 공식지가 하락은 일본 부동산가격 하락의 영향에 따른 것이다.

일본 정부는 국유재산에 등록했지만, 소유권 주장에 필요한 절차인 등기(登記)는 하지 않았다. 일본 법무성은 "소유권이 명백한 만큼 법률상 등기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정부가 당시 나흘 동안 실시하는 육·해·공군 합동 독도 방어훈련에서 상륙 작전에 투입할 해병대 병력을 제외하기로 결정해 논란이 되었다.

이에 앞서 일본 정부는 당시 고위급 외교채널을 통해 한국의 독도방어훈련 계획에 대해 항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독도 문제에서 단호한 대응을 강조하던 정부의 대일 외교가 원칙 없이 오락가락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었다.

군 관계자는 "당초 해병대가 독도에 상륙해 지형정찰까지 하는 시나리오였지만 해군이 주도하는 계획으로 바뀌었다"며 "독도에 외국의 군대가 아닌 민간인이 불법 상륙하는 상황을 가정해 해군이 주도적으로 퇴거하는 방식으로 훈련이 진행되었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독도 방문 이후 한일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해병대가 참가하는 합동훈련을 예정대로 실시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해병대 병력 30명과 헬기를 투입해 독도에서 공중돌격 상륙작전을 펼치는 방식으로 훈련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해병대는 2009년 이 같은 훈련을 한 적이 있다.

인터넷 언론 등록기준 강화해야

우리나라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언론 매체 수는 지난 해 말 기준으로, 1만 7,607개로 나타났다. 이 중에 인터넷 언론 매체는 5,950개나 된다. 또 인터넷 언론 기사는 8,000여명에다가, 신생 매체 수는 해마다 1,000여개씩이나 늘어난다고 한다. 국회 출입 기자로 등록한 숫자만도 1,500명이나 된다니, 우후죽순적이다. 그러므로 이런 언론 매체의 과다한 등록에 따른 문제와 경쟁, 그리고 보도의 질은 괜찮은 지 살펴볼 일이다.

언론의 자유를 위한 측면에서는 언론의 숫자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겠으나,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과도한 경쟁, 유사언론 행위(기사를 빌미로 광고 요구 행위), 지나친 선정성 문제 등은 언론의 질 저하는 물론, 우리 사회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본다.

이에 대하여 지난 달 모 진보언

론에서는 "뉴스 넘쳐 나지만 '진짜 뉴스'가 없다"는 기사를 통해, '포털중심의 기형적 뉴스 소비행태'와 '연예뉴스/선정기사의 과도한 노출 문제점'과 '질 낮은 콘텐츠로 소비자도 불만'이란 기획 기사를 실은 바 있다. 또 이 글에서 언론인에 대한 '언론 수용자 의식 조사'에서 나타난 문제점도 지적했는데, 지난 2006년 3점(5점 만점)에서 지난해에는 2.68점으로 추락하므로, 언론인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졌다고 보도했다.

지난 11일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언론중재위원회의 전체 조정건수 2만 5,544건 중, 포털과 인터넷 매체의 뉴스 서비스에 의한 피해 관련 조정 청구 건수가 5,271건으로 전체의 20.6%를 차지하였다. 이는 일반 신문 2,198건, 방송 1,022건에 비해 최대 5배나 높은 수치이다. 인터넷 뉴스의 문제점이 심각함을



양병호 목사
한국교회언론회 회장

보여 주고 있다.

또한 지난 7월 1일 한국광고주협회의 〈2015 유사언론 행위 피해 조사결과〉 발표에서도, 조사 대상 기업 90%가 유사언론 행위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기업의 87%가 피해를 직접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상황들을 감안하여, 정부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인터넷 매체의 기준을 강화하기로 하고, 입법예고 했다. 이 기준에 의하면, 첫째는 기존의 기자(취재 및 편집 기자)를 3명 이상에서, 5명 이상으로 늘린다. 둘째는 기자의 상시 고용을 증명하는 것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중 1가지 이상의 가입내용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셋째는 청소년 유해정보의 차단 업무를 맡을 책임자를 지정, 공개해야 한다는 것 등이다.

이 법안은 10월 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 후에 국무회의를 거쳐 12월 개정안을 공포할 계획이며, 새로 등록하는 인터넷 신문들은 이런 등록 요건을 충족해야만 하고, 기존 인터넷신문들은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둔다고 한다.

이런 개정안을 통하여, 건전한 소규모의 기존 언론들 가운데,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 시행령 추진에 '표현의 자유와 여론의 다양성을 해친다'는 반발도 만만치 않다. 또 여론을 통

제하는 수단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지적도 있다.

인터넷 기자회견회는 새로운 개정안에 따른 재정 부담으로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할 인터넷 신문사가 전체의 85%에 해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난립하는 언론 매체로 인하여 그 폐해가 심각하다면,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도 시급하다고 본다.

따라서 1년간의 유예기간 동안 기존의 인터넷 매체들도 자구 노력과 자정 노력에 동참함이 당연하다고 본다. 차체에 등록 요건이 어려운 유사한 인터넷신문사들끼리는 통합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건전한 재정과 조직없이 건전한 언론 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 아닌가. 언론과 언론 매체, 그리고 언론인에 대한 신뢰도가 계속 떨어지는 것은, 결국 우리 사회 전반을 불신 사회로 내모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언론에 대한 대국민 신뢰 회복은 언론 자체의 몫이다. 언론은 사회적 공기(公器)로서의 건강한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낙토 성경 아카데미 1기생 모집

- 성경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최고의 선물이며 복이다.
-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
- 성경을 알아야 영생한다(요 17:3).



서성문 목사
낙토교회 담임목사

- 기간: 2015. 9. 1 ~
- 시간: 매주 화요일 오전 11:00 ~ 12:30
- 장소: 인천 연수구 용담로 125번길 41 (구 연수구 연수동 539-8) (메카리움오피스텔 3층 낙토교회 본당)
- 인원: 선착순 50명
- 문의: ☎ 032) 811-6896, 010-8838-6896

(신청서식 참고)

이름: _____
주소: _____
전화번호: _____
소속교회: _____
직분: _____
생년월일: _____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웨신) 제100회 정기총회



정일랑 목사



신언창 목사

보수신앙과 개혁주의 신학의 정체성으로
한국교회를 견인하는 교계의 표준 웨신총회

(-양무리의 본이 되라- 뎀전5:3)

웨신총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로 172 301호
☎ (02)835-2606-7 Fax (02)835-2068
http://ws21.org

대한예수교장로회(에녹)총회

제2회기 성 총회가 출발됨을 축하합니다



박영민 목사



장만천 목사



주찬양 목사



김성기 목사



최금용 목사



김영애 전도사

총회 가입문의 : (간사) 010-6778-0651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본교단은 2014년 5월에 설립된 신생 교단으로 분열, 교파가 아닌 순수자생교단으로 사한국가독교보수교단협의회에 가입된 건전한 교단입니다.

주 소 : 인천광역시 남구 동해길 5 (송의동) 총회장 : 박영민 목사
☎ : 032-891-0651 H.P 010-2080-0651(등불교회)

그교협, 제80차총회 회장에 임종원 목사 선출

목회자 재교육, 신학생 육성, 교계 연합활동 등에 주력할 터!

그리스도의교협회의회는 지난 9월 21일(월)~23일(수)까지 충남 천안시 동남구 서부대로 그리스도의교회 천안명문교회 본당에서 '이제는 빛을 발해야 할 때'라는 주제로 제80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신임 회장에 임종원 목사를 선출했다.

제80차 총회에 앞서 회장 신봉수 목사는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다. 신 회장은 설교에서 '성경에 나온 초대교회는 경건생활에 힘쓰고 공동체 유익을 구했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자'는 데 있다고 했다.

또한 그교협은 제80차 회기에서 '목회자 은퇴의 건, 원로예우의 건, 충신통회관 매각 건 등이 결의'되었다. 따라서 회관운영위원회(12명)의 준비 작업을 거쳐서 제단법인 한국그리스도의교회 유지재단이사회(이사장 김탁기 목사)의 결정에 의해 주무관청의 허가를 득한 후 최종 매각의 절차를 밟는다.



하지만 충신통회관 매각은 쉽지않은 않다. 현 시점으로 볼 때 의외로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그교협은 이날 작전 회장 김탁기 목사에게 교단발전에 헌신을 다해 힘써 왔으며 공로패를 전달했다. 이어 신호경(용인 디딤돌교회), 서완(전남 북일교회)목사에게 개척교회 격려패를 수여했다.

그교협 제80차 신임원은 아래와 같다

회장 임종원 목사, 제1부회장 신조광 목사, 제2부회장 박우삼 목

사, 장로부회장 공창호 장로, 상임총무 엄만동 목사, 서기 정병기 목사, 회계 강보식 목사, 회록서기 권상훈 목사, 감사 오광은 목사, 김재영 장로

회장 임종원 목사(천안명문교회)의 취임소감

"그리스도의교협회의회(그교협)는 1930년대 미국 선교사들의 선교 활동으로 시작되어 현재 서울기독교총연합회 소속한 교단이다. 그교협은 성경 외에 교권 등 인위적인 것

을 일체 배제하고 '성경으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환원(還元)운동을 전개하는 교단으로서 한국교회의 복음화를 위하여 힘쓰고 있는 자랑스러운 교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종원 회장은 그교협은 한국교회의 건전한 교단으로서 "1년 임기 동안 서울 충신통회관을 매각해 교단의 재무 건전성을 높이고 교회 개척과 목회자 재교육, 신학생 육성, 교계 연합활동 등에 주력하겠다"며 취임 소감을 밝혔다.

또한 임종원 신임회장은 4년마다 열리는 세계그리스도인대회의 성공적 개최에 힘쓰겠다고 강조하고 2016년 8월14일(주일)~17일(수)까지 한양대학교 예리캠퍼스(경기도안산)에서 열린다면서 성공적 개최를 위해 예산준비 등 만반의 준비를 위해 힘을 것이라며 2016 그리스도의교회세계대회를 통해 한국과 세계에 그교협을 알리고 홍보하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덧붙였다.

예장고려총회 제65회 총회장에 홍록두 목사 선출

고려신학교 김길곤 교수의 정년은퇴식이 함께 진행되어

대한예수교장로회(고려)총회가 지난 9월 22일(화)~23일(수)까지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놀노리 고려신학교 아카데미캠퍼스(문산)에서 "그일라를 구원하라"는 주제로 개최되어 현 총회장 홍록두 목사를 재추대했다.

제65회 대한예수교장로회(고려)총회는 140여 명의 목사와 장로 총대들이 모인 가운데 '그일라를 구원하라'(삼상 23:1-5)라는 표제 아래 진행되었다. 개회예배는 9월 22일(화) 오후 7시 30분부터 총회장 홍록두 목사의 사회와 '그일라를 구원하라'(삼상 23:1-5)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서기 이현상 목사의 기도, 회록서기 표성철 목사의 성경봉독, 고려신학교 신학원 천양태의 찬양, 총회장 홍록두 목사의 축도로 진행되었다.

개회예배 후 진행된 회무처리 시간에는 회원호명, 개회선언, 절차보고, 규칙통과, 투표위원 선정, 임원선거, 신규임원 이취임, 꽃증정, 공천부보고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으며 이후 정회하였다. 둘째 날은 서기 이현상 목사의 인도로 새벽예배를 드렸으며, 오전 9시 30분부터 중부노회장 강춘식 목사의 집례로 성찬식이 거행되었고 이후 회무처리가 계속되었다. 경과보고를 통해 총회 각부의 보고와 노



회별 상황보고를 받았으며, 기타 각종 안건들이 처리되었다.

특히 금번 제65회 총회감사예배 중에는 김길곤 교수의 정년은퇴식이 함께 진행되었다. 먼저 총회 서기 이현상 목사의 사회, 부총회장 이진성 목사의 기도, 총무 박영출 목사의 성경봉독, 총회장 홍록두 목사의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나(답후 4:6-8)라는 제목의 설교로 하나님께 감사예배를 올려 드린 후 정년은퇴식이 진행되었다.

김길곤 교수의 정년은퇴식은 교학처장 황명길 교수의 약력소개, 정연철 교수의 정년은퇴논문집 증정, 신학교 총동문회와 교장 강구원 목사의 은퇴기념품 수여, 화환 및 선물 전달, 석기현 목사의 축사, 김길곤 교수의 답사, 회계 조

영찬 장로의 헌금 기도 및 헌금, 광고, 전총회장 서상일 목사의 축도로 제65회 총회감사예배 및 김길곤 교수의 정년은퇴식을 모두 마쳤다.

금번 제65회 총회에서 선출된 신임임원들은 다음과 같다.

총회장 : 홍록두 목사(서머나 / 경인), 부총회장 : 이진성 목사(창원해광 / 영남), 총무 : 박영출 목사(임마누엘 / 중부), 서기 : 이현상 목사(서울남 / 경향), 부서기 : 오기정 목사(좋은 / 서남), 회록서기 : 표성철 목사(대구광명 / 영남), 부회록서기 : 고일곤 목사(하림 / 서남), 회계 : 조영찬 장로(경향 / 서울남), 부회계 : 이정장로(서머나 / 경인)

예장순장총회 제63회기 총회장에 전충현 목사 추대

신학교주일 선정하고, 사)예총련 탈퇴한다 결의

대한예수교장로회(순장)총회 제63회기 총회가 지난 21일~22일까지 경기도 의정부시 용민로 한빛전원교회(담임 지태영 목사)에서 개최되어 신임총회장에 전충현 목사(신길4동 동천교회 목사)가 선출되었다. 전 총회장은 제57회~제

58회기에 이어 제63회기 총회장에 당선되었다.

이날 총회장 권정희 목사 인도로 총회에 앞서 1부 개회예배가 시작되어 부총회장 김동민 목사가 기도를, 권 총회장은 민 1:25~33절을 본문으로 "믿음의 대장부가

되시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다. 이어 권정희 총회장의 집례로 성찬식을 진행, 성찬위원 손근수 목사, 김성기 목사가 총대들에게 분병, 분잔을 배분하고 권 총회장의 축도로 마쳤다.

예장순장총회는 총회장 권정희 목사의 회무처리기 서기 김일수 목사의 기도로 시작되어 회원점명과 개회선언, 전회록낭독, 전년도 임원 사임과 각부보고와 규칙통과 순으로 회무가 진행되었다.

이날 제63회기에서 결의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은금부 신설되고, 2. 예총련(사,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연합회) 탈퇴를 결의했다. 3. 신학교주

일 선정기로 하고, 4. 수양관매각 자금 운용을 조정하여 실행한다고 결의했다.

순장총회 제63회기 선출된 총회 임원명단은 아래와 같다.

총회장 전충현 목사(동천), 부총회장 김동민 목사(창대), 정영섭 장로(신원예배), 서기 김일수 목사(동신), 회록서기 이준순 목사(좋은), 회계 한재와 장로(동천), 부회계 박대근 장로(송덕), 시찰부장 윤정현 목사(해맑음), 부부장 박종선 장로(동천), 선교부장 이재성 목사(신원예배), 부부장 손근수 목사(새소망), 박점수 장로(안전), 교육부장-임원 사임과 각부보고와 규칙통과 순으로 회무가 진행되었다.



피종진 목사 10월 국내·외성회일정

1(목)~2(금)
인도(India) 방갈로 원주민 목회자 기도치유세미나(원주민교회)
주최: 기도치유아카데미(이사장 피종진 목사, 원장 정요한 목사)
장소: 예수통교회(김동우 목사) ☎ 010-5202-7723

5(월)~8(목)
캄보디아(Cambodia) 성회
군사 헌병교회(정영희 목사) ☎ 063467-0691
동서문화회 정기노회

12(월)~13(화)
장소: 서울 총현교회(김동우 목사) ☎ 026552-8200
서울 강남은파교회(정민철 목사) ☎ 010-3224-2345
서울 주성교회(남보식 목사) ☎ 010-7220-0733
충현교회(박요한 목사)

16(금)~18(일)
평양 남북평화통일기원 감사기도회(평양 봉수교회)
서울 대명교회(이동규 목사) ☎ 010-3660-7147
서울 드림교회(조영성 목사) ☎ 010-9685-0191

19(월)~21(수)
제193차 해외성회(193rd Overseas Assembly)
일본(Japan) 요카이찌 아사히교회(산안수 목사) ☎ 070-4656-3836
일본(Japan) 요카이찌 아사히교회(산안수 목사) ☎ 070-4656-3836
(사)순성 목회자(사모세미나)

26(월)~27(화)
장소: 서울 평화의동산(원장 피종진 목사) ☎ 041852-2211
안산 광복성서신학원(장 백재현 목사) ☎ 010-7404-8541
서울 새동교회(정병두 목사) ☎ 02714-0735

28(수)~29(목)
김포 지구촌교회(전순우 목사) ☎ 010-5600-2756
서울 강남은파교회(정민철 목사) ☎ 010-3224-2345

29(목)~30(금)
황성 은파수양관(박병구 목사) ☎ 010-5348-0564
부천 행복교회(이화영 목사) ☎ 010-7707-0150

30(금)~31(토)
경기도 광주 성산기도원(장 김형용 목사) ☎ 010-2235-3927

피종진 목사
010-5255-7777
Goodbless3377@gmail.com
대한예수교장로회
남서울중앙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4
T: 02)3411-9191
F: 02)401-7770
F: 02)3411-9111

제2장 사도영성 운동의 성경적 기초(10)

1. 사도영성 운동의 성경적 개념

성경에서는 '영적운동'이란 단어는 나오지 아니하나 '부흥'이란 단어와 그 의미가 같은 단어는 많이 찾아볼 수 있다 그 단어는 '하야'(HAYA)로 하박국 3:20에 "여호와여...수년내에부흥케하옵소서"와 사편8:6, 시편71:20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이사야67:16 "지존무상 하며...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함이라"고 하였다 이때 모두 '하야'라는 단어를 썼다 이처럼 구약에서 '부흥'은 다시 살리라'와 '소성케 한다'는 의미가 있다 이 의미가 구약역사 속에서 계속적으로 흐르고 있다

먼저 '미스비영성운동'은 사무엘이 국가적 중대사를 논할 때 이스라엘민족

을 소집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

는 '영성운동'이라할 수 있다. 그다 음 '갈렐산영성운동'은 엘리야와 이스라엘왕 아합과 왕비 이세벨과 바알선지자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사이에 참신이 누구냐는 대결로서 결국 살아 있는 하나님을 알리는 모험이 되었다 이 결과로 엘리야가 850명의 거짓 선지자를 척결할 수 있는 전기를 만들었고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을 영적으로 부흥케 되는 결과를 낳았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아합왕(876-854.B.C) 당시의 선지자로서 왕후 이세벨이 우상을 섬기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여호와를 떠나 이방 신을 섬기도록 강요하고 여호와와 선지자들을 멸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3년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지 않도록 했다(왕상 17:1; 18:1)이러 한때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이방 선지자850명과 갈렐산에서 '어느 신이 참 하

나남이신가'를 겨루게 하였고 결국 이대 결에서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임을 백성들은 깨닫게 되었다

또한 '요나의 부흥운동'이 있다 이는 요나가 니느웨의 백성을 하나님의 진노에서 살렸던 회개운동이다 그 다음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요시아왕의부흥운동으로서 이는 도덕성회복을 법교육 하나님께 대한 제사회복운동으로 나타난 영적부흥운동 중의 하나였다 마지막으로 '에스라의영성운동'은 유명하다 레위 자손으로 아론의 16대손인 학사겸 제사장으로서 유배에 익숙한 에스라가 유배교육과 이스라엘 종교적 전통을 회복시키고 무지를 깨우쳤던 '영성회복운동'이다 위에서 언급한 구약성서의 영적부흥운동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다음호에 계속

영광교회 조강수 목사 10월~11월 집회일정

조강수 목사
엔루부흥사협의회 대표회장
지저스타임즈 이사장
영광교회 담임목사

- 10월5일(월)~10월7일(수) 천안아가페교회
임미향 목사 010.6201.8374
- 10월12일(월)~10월14일(수) 주안은총기도원
주은총 목사 010.6327.0191
- 10월18일(주일저녁)~10월21일(수) 거룩한복된교회
한사라 목사 010.4161.5220
- 10월25일(주일저녁)~10월29일(목) 예복교회
소진우 목사 010.8753.7179

- 10월 30일(금) 오전 11시
지저스타임즈 창간 10주년기념
감사예배 장소 : 예복교회 본당(본사 사장)
- 11월 2일(월)~5일(목)밤까지
청주금식수양관
충북 청원군 남이면 척산리 578-5
원장 백효선 목사 010-5736-3004
전화 / 043-269-5211

- 11월 8일(주일저녁)~11일(수)밤까지
청주은성교회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운동동 495번지
담임 호세길 목사
043-297-7373-4

- 11월 15일(주일)~18일(수)저녁까지
강원도 임계기독교연합성회

